


#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 목 차

###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b>특별상</b>	나가고싶다	구회남   곡성군 문해교실	... 08
	소금꽃	김연심   영광공공도서관	... 10
	오메 우리 엄마가 영어도 일거부네	오말레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 12
	글자 스위치	김이심   여수시 문해교실	... 14
	글주머니	김복심   섬사랑 평생교육원	... 16
<b>우수상</b>	인간극장	박순임   광양시 문해교실	... 18

###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b>도지사상</b>	성공한 나의 꿈	김애정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 22
	예쁜꽃	이정순   담양공공도서관	... 24
	동급생	김재권   곡성군 문해교실	... 26
	눈물젖은 편지	박순단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8
	틀려도 좋아	김정심   보길도 꿈꾸는 학교	... 30
	글 열매	홍송자   소라종합사회복지관	... 32
	한글	오일심   목포공공도서관	... 34
	한글통장	김양애   보길도 꿈꾸는 학교	... 36
	그래도 학교에 가네	정안임   고금비전한글학교	... 38
희망을 안겨준 당신	정백안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 40	
<b>교육감상</b>	나의 꿈	양춘엽   여수시 문해교실	... 42
	난 부자가 되었어요	김옥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 44
	내 숙제	진정희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46
	보석	이윤심   무안군 문해교실	... 48
	화단의 장미꽃	장복순   담양공공도서관	... 50
	희망을 바라보며	조수남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 52
	나의꽃밭	주양례   순천향토학교	... 54
	쓰고 싶은 것	곽순례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 56
	만학도	김유자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 58
	내 인생의 꽃	김옥단   나주공공도서관	... 60





**진흥원장상**

할미꽃	김길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62
긴문자	이옥향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64
오십원과 오십만원	김순남   영광공공도서관	... 66
그러면 그렇지	고인례   섬사랑 평생교육원	... 68
꿈	이옥남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 70
문자를 보내보고 싶다	김향순   광양시 문해교실	... 72
행복한 세상	이영단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 74
늪어 가는 길	문숙자   곡성군 문해교실	... 76
며늘아 오것 잔 사온나	이영숙   완도평생교육원	... 78
사랑하는 남편	김기선   목포공공도서관	... 80
공부하는 리야까	박명심   전국 야학협의회 여수지부 상록배움터	... 82
고구마	김성임   여수 YWCA 문해교실	... 84
용기	박순심   곡성군 문해교실	... 86
복지관 글공부	강복자   목포시노인복지관	... 88
보고싶은 얼굴들	민점순   꿈다락 홍지 성인문해교실	... 90
내 슬픔	김학순   꿈다락 홍지 성인문해교실	... 92
민들레	주순자   여수시노인복지관	... 94
나의 노년의 삶	한덕님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 96
공부	김고만   무안군 문해교실	... 98
겁나지 않아요	이홍례   전국 야학협의회 여수지부 상록배움터	... 100
나, 공부한다!	조형심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 102
나의꿈	정정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104
오행시	김인덕   하나노인복지관	... 106
씨앗 뿌린날	김종임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 108
영어교실	이형숙   순천향대학교	... 110
호떡	성금자   여수 YWCA 문해교실	... 112
꿈	최선엽   여수시 문해교실	... 114
공부는 학교에서	윤순자   고금비전한글학교	... 116
길잡이	문미순   완도평생교육원	... 118
무서운 코로나 19	왕궁자   광양시 문해교실	... 120
참새	윤복단   상리사회복지관	... 122
글놀이	임근녀   목포시노인복지관	... 124



2021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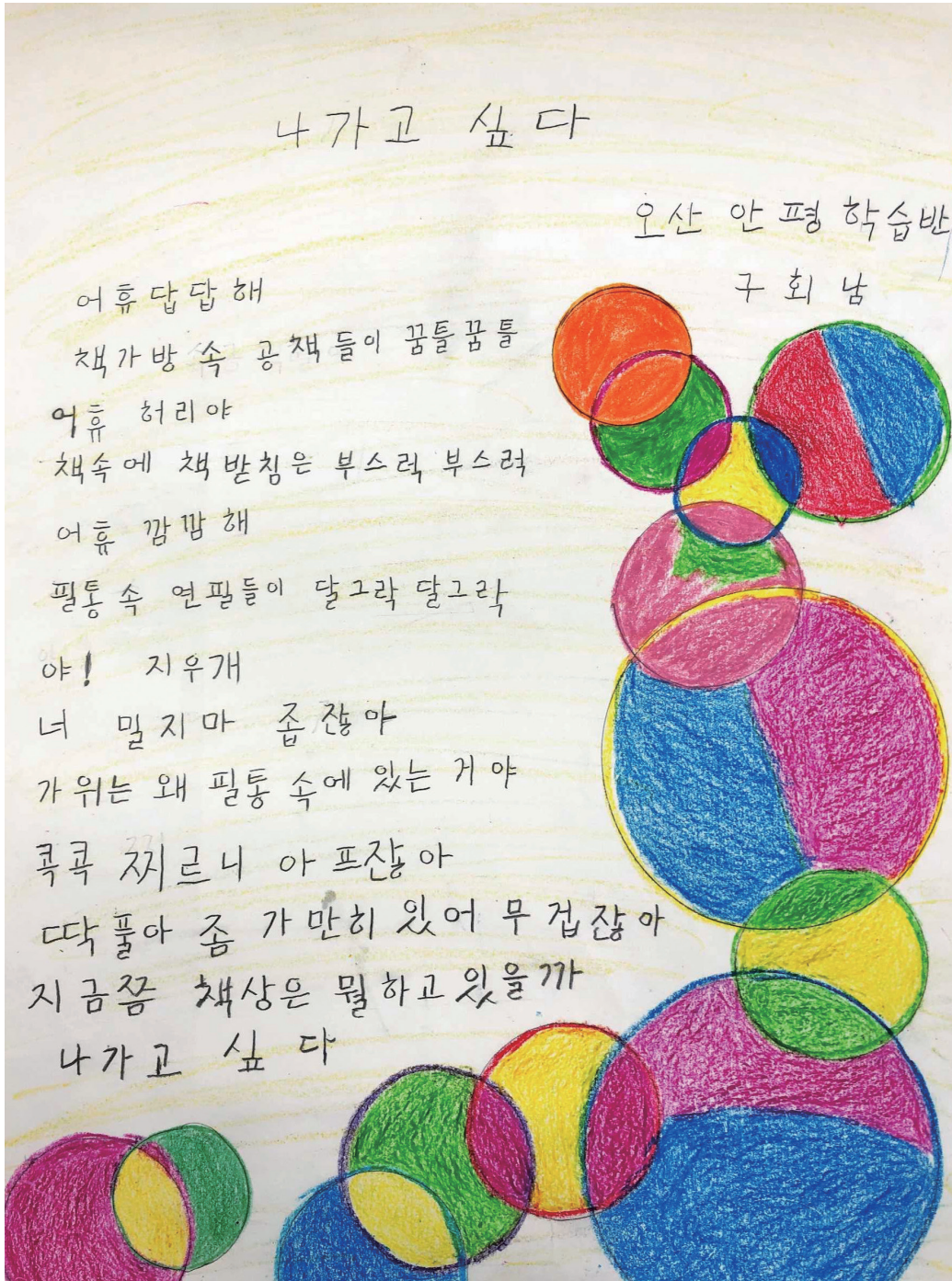


글자에 담음 희망의 여정

---

#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



# 나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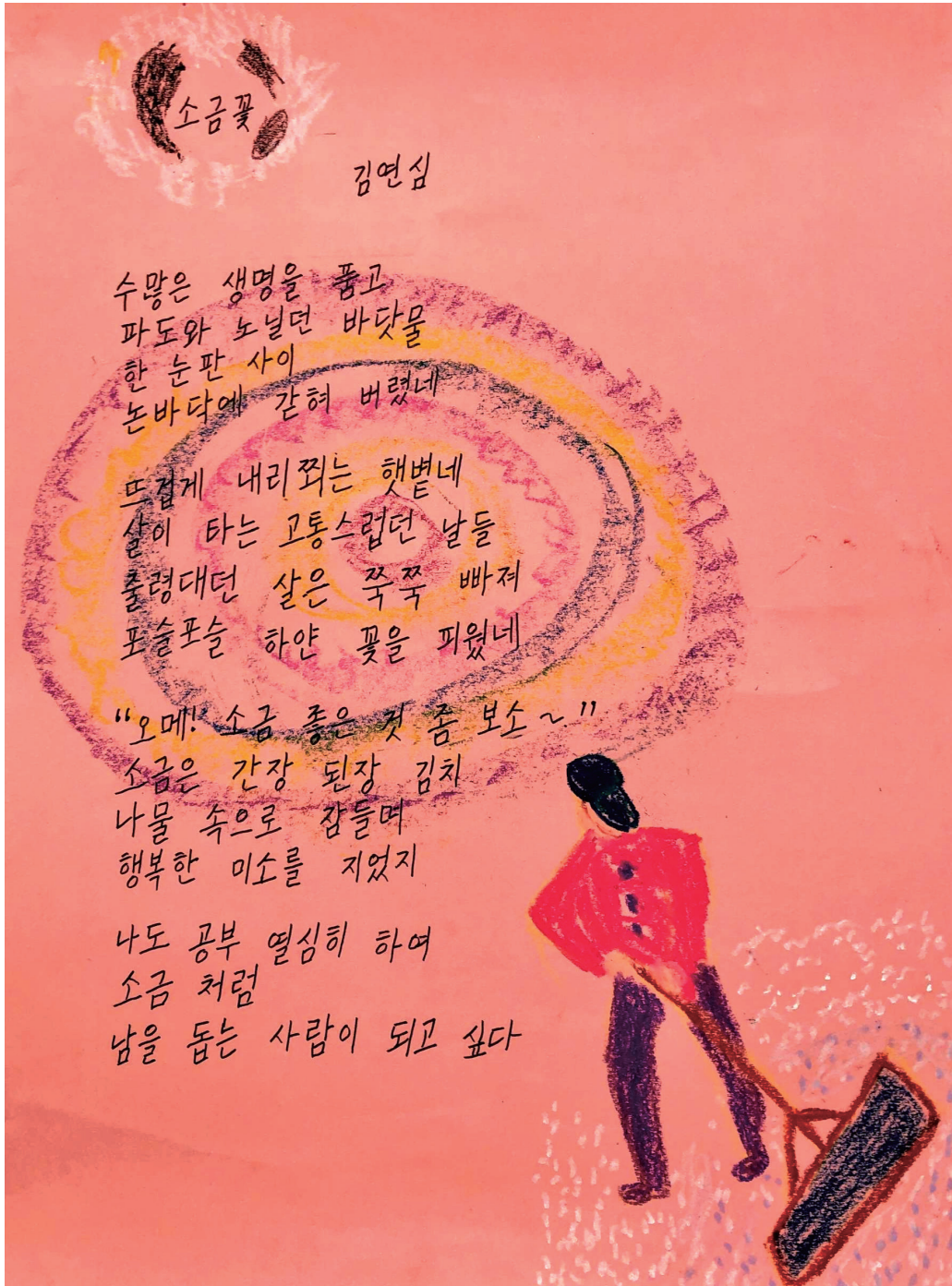
곡성군 문해교실

구회남 | 79세

어휴 답답해  
책가방 속 공책들이 꿈틀꿈틀  
어휴 허리야  
책속에 책받침은 부스럭 부스럭  
어휴 감감해  
필통 속 연필들이 달그락달그락  
야! 지우개  
너 밀지마 좁잖아  
가위는 왜 필통 속에 있는거야  
콕콕 찌르니 아프잖아  
딱풀아 좀 가만히 있어 무겁잖아  
지금쯤 책상은 뭘하고 있을까  
나가고 싶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



김연심

수많은 생명을 품고  
파도와 노닐던 바닷물  
한 눈판 사이  
논바다에 갇혀 버렸네

뜨겁게 내리찍는 햇볕네  
살이 타는 고통스럽던 날들  
출렁대던 살은 쪽쪽 빠져  
포슬포슬 하얀 꽃을 피웠네

“오메! 소금 좋은 것 좀 보소~”

소금은 간장 된장 김치  
나물 속으로 잠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

나도 공부 열심히 하여  
소금 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소금꽃

영광공공도서관

김연심 | 72세

수많은 생명을 품고  
파도와 노닐던 바닷물  
한 눈판 사이  
논바닥에 간혀 버렸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네  
살이 타는 고통스럽던 날들  
출렁대던 살은 쪽쪽 빠져  
포슬포슬 하얀 꽃을 피웠네

“오메! 소금 좋은 것 좀 보소~”  
소금은 간장 된장 김치  
나물 속으로 잠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

나도 공부 열심히 하여  
소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오메 우리 어머니가 영어도 일거부네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오말레 | 7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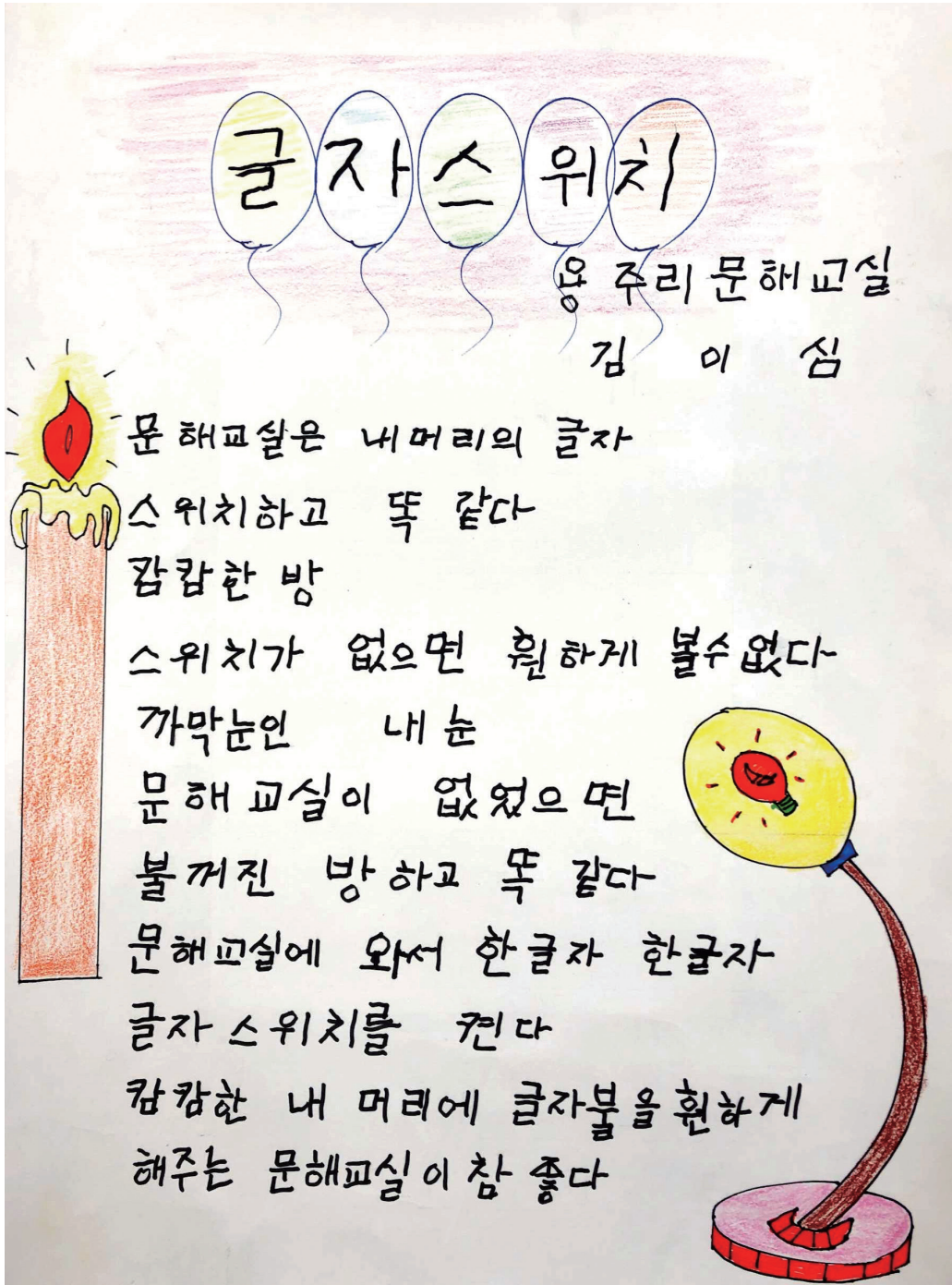
아들과 나주병원을 가면서  
차에 기름을 넣로 갔다.  
LPG 간판을 일것다.  
“오메! 오메! 우리 어머니가 영어도 일거부네.”  
아들이 뺑그시 웃으며 겁나게 좋아한다.

엄마가 공부한다고 색연필 사다준 큰 딸 미라  
엄마가 공부한다고 책가방 사다준 큰 아들 재진이  
할머니가 공부한다고 연필 깎아준 큰 손녀 효린이  
오늘도 나는 가족들의 LOVE를 온 몸에 걸치고  
선생님과 공부 DATE하러 간다.

나는 문해학교를 갈 때마다  
한 송이 목련화 꽃봉오리가 된 것 같다.  
영어도 배우고 한자도 배우고 오면  
한 송이 목련화 꽃봉오리가 된 것 같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



# 글자 스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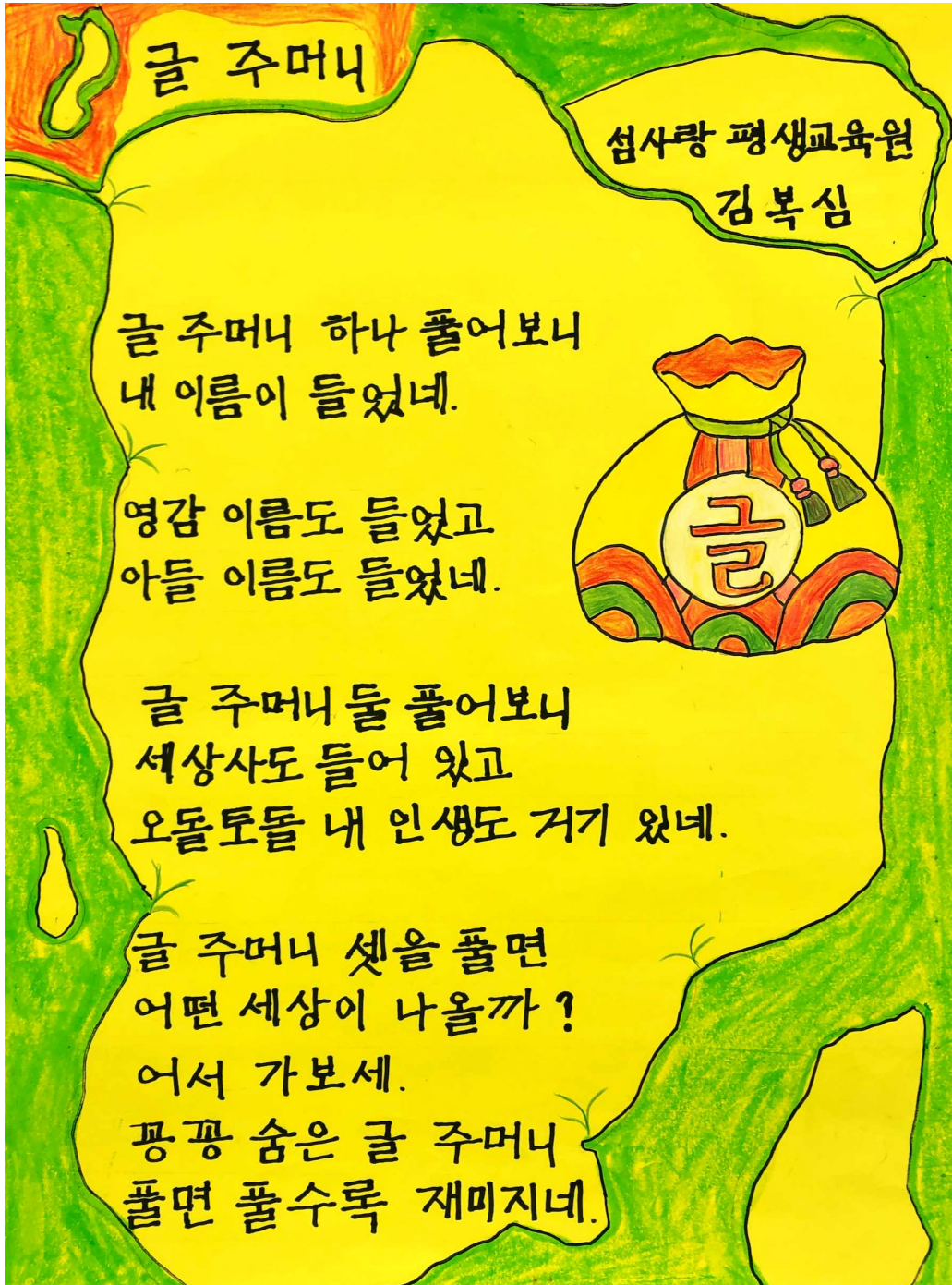
여수시 문해교실

김이심 | 68세

문해교실은 내머리의 글자  
스위치하고 똑 같다  
깜깜한 방  
스위치가 없으면 흰하게 볼수 없다  
까막눈인 내 눈  
문해교실이 없었으면  
불꺼진 방하고 똑 같다  
문해교실에 와서 한글자 한글자  
글자스위치를 켜다  
깜깜한 내 머리에 글자불을 흰하게  
해주는 문해교실이 참 좋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상



# 글주머니

섬사랑 평생교육원

김복심 | 78세

글 주머니 하나 풀어보니  
내 이름이 들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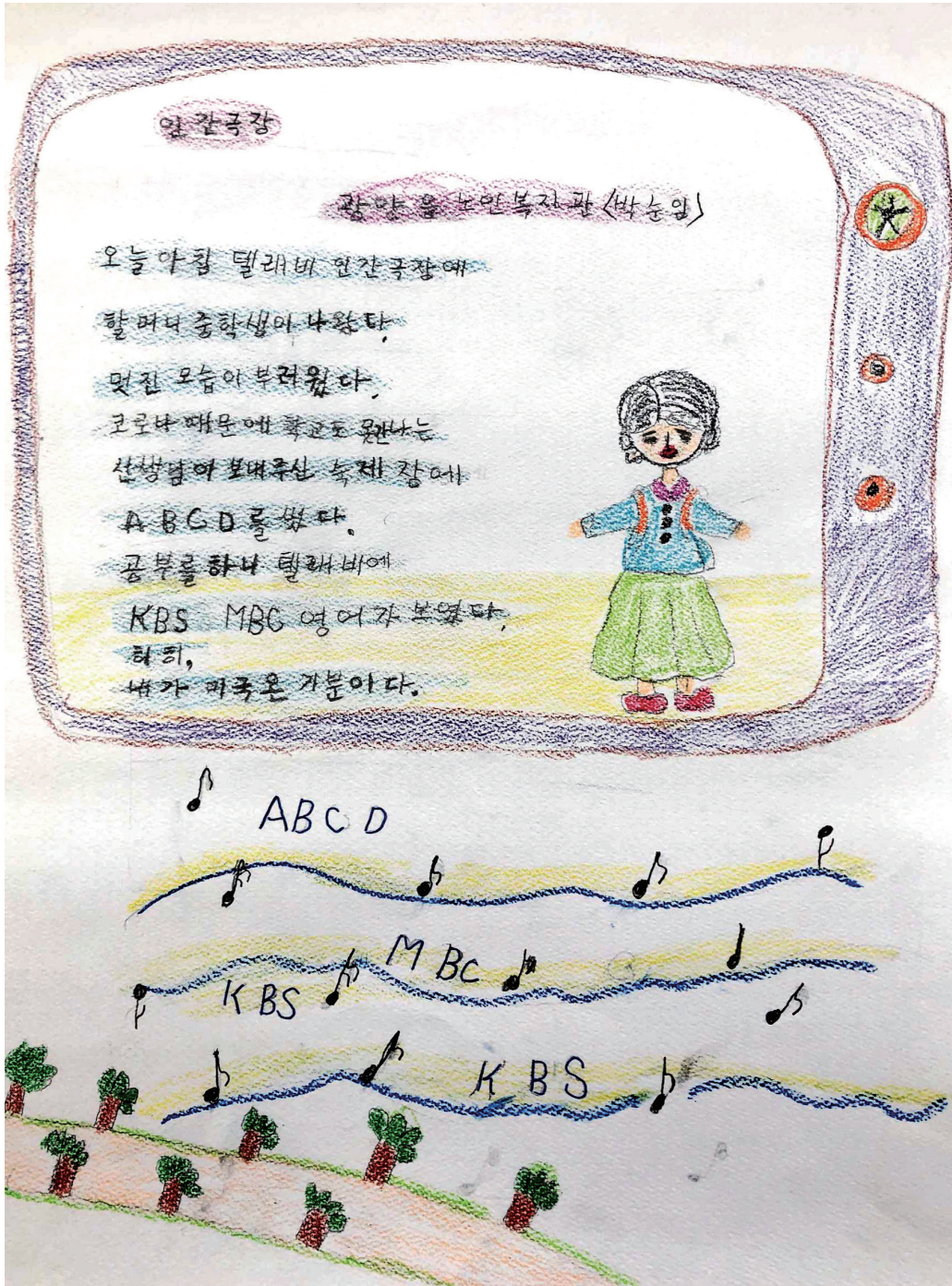
영감 이름도 들었고  
아들 이름도 들었네.

글 주머니 둘 풀어보니  
세상사도 들어 있고  
오돌토돌 내 인생도 거기 있네.

글 주머니 셋을 풀면  
어떤 세상이 나올까?  
어서 가보세.  
퐁퐁숨은 글 주머니  
풀면 풀수록 재미지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상



# 인간극장

광양시 문해교실

박순임 | 75세

오늘아침 텔레비 인간극장에  
할머리 중학생이 나왔다.  
멋진 모습이 부러웠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간 나는  
선생님이 보내주신 숙제장에  
ABCD를 썼다.  
공부를 하니 텔레비에  
KBS MBC 영어가 보였다.  
하하,  
내가 미국온 기분이다.





2021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글자에 담음 희망의 여정

---

#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성공한 나의 꿈

김애정

나는 글을 몰라 하고 싶은 일도 못했다  
목포제일정보라는 학교가 있었다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였다  
글을 얼마큼 아냐고 물었을 때  
받침이 있는 건 모른다고 하였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다짐을 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은행일도 혼자 본다  
혼자서도 일을 잘 본다  
하루하루 행복하다

나는 사회복지사를 따고 싶다  
나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커피 자격증을 따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는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 성공한 나의 꿈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김애정 | 44세

나는 글을 몰라 하고 싶은 일도 못했다  
목포제일정보라는 학교가 있었다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였다  
글을 얼마큼 아냐고 물었을 때  
받침이 있는 건 모른다고 하였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다짐을 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은행일도 혼자본다  
혼자서도 일을 잘 본다  
하루하루 행복하다

나는 사회복지사를 따고 싶다  
나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커피 자격증을 따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는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예쁜꽃

이정순

장미가 활짝 피었다.  
외갓집에도 피었다.  
못살던 어린 날 예쁜 장미처럼  
마음 곱던 외갓집서 도와줘서  
평생 안 잊고 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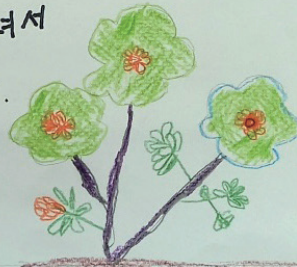
채송화도 피었다.  
마당 한쪽에 여름이면 날마다 피었다.  
매화꽃도 피었다.  
예쁜 하얀 매화꽃이 피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은 우리 딸이다.  
큰아들은 최고로 예쁘다.  
참가 안가서 속 썩이는 돌지재 아들래미  
맘에 맞든는 미운꽃이다.



공부도 꽃처럼 예쁘디 공부는 나를 안 좋아 하는가  
도망가 버리고

머리는 돌인가 기억이 안난다.  
예쁜 꽃처럼 내 머리도 활짝 펴서  
머릿속에 공부를 많이 넣고 싶다.



## 예쁜 것

담양공공도서관

이정순 | 77세

장이가 활짝 피었다.  
외갓집에도 피었다.  
못살던 어린 날 예쁜 장미처럼  
마음 곱던 외갓집서 도와줘서  
평생 안 잊고 살다가

채송화도 피었다.  
마당 한쪽에 여름이면 날마다 피었다.  
매화꽃도 피었다.  
예쁜 하얀 매화꽃이 피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은 우리 딸이다.  
큰 아들은 최고로 예쁘다.  
장가 안가서 속 썩이는 둘째 아들래미  
맘에 앓드는 미운 꽃이다.  
공부도 꽃처럼 예쁘디 공부는 나를 안 좋아 하는가  
도망가 버리고  
머리는 돌인가 기억이 안난다.  
예쁜 꽃처럼 내 머리도 활짝 펴서  
머릿속에 공부를 많이 넣고 싶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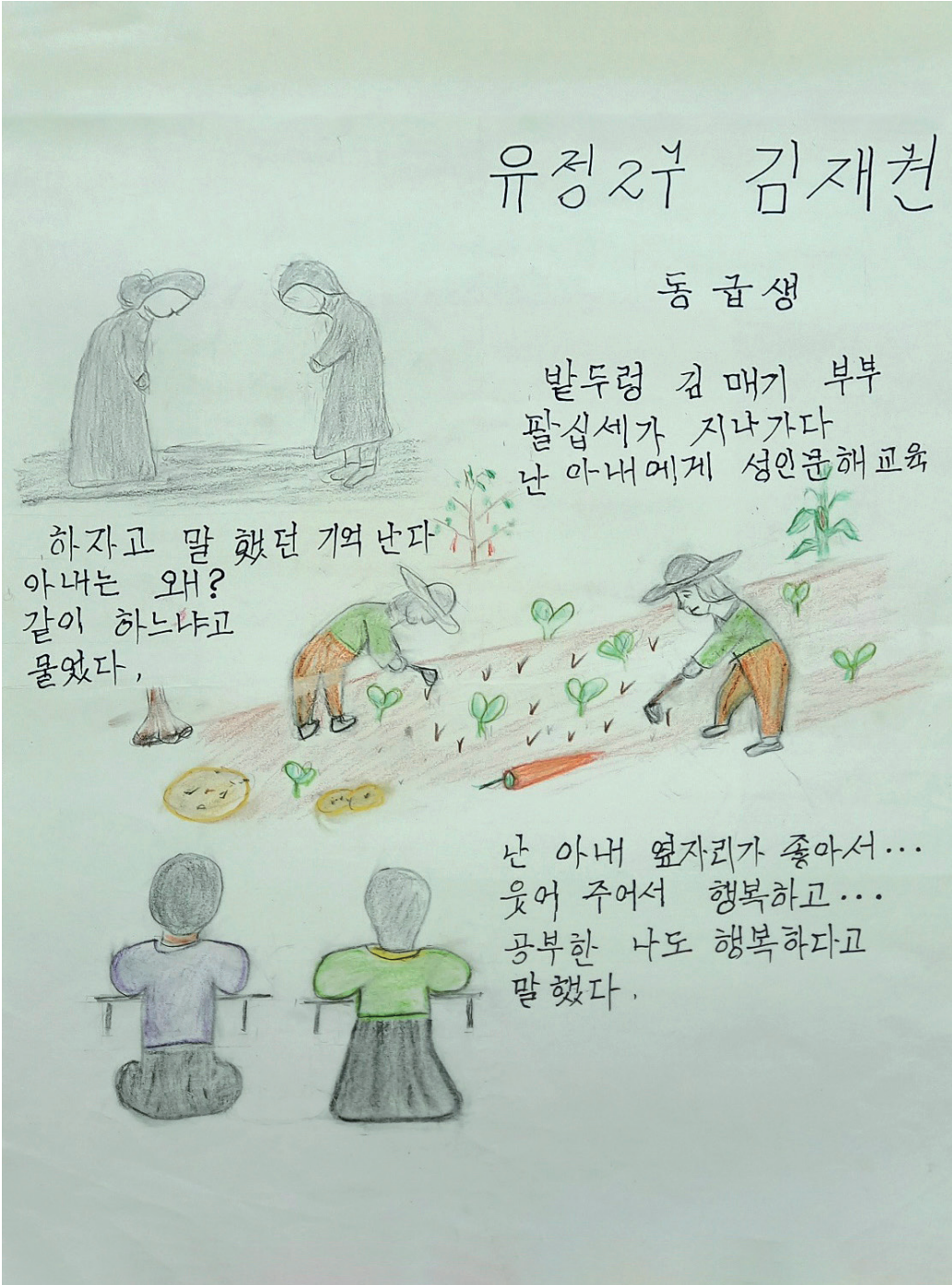
# 유정리 김재권

동 급생

발두렁 김 매기 부부  
팔십세가 지나가다  
난 아내에게 성인문해교육

하자고 말 했던 기억난다  
아내는 왜?  
같이 하느냐고  
물었다,

난 아내 옆자리가 좋아서...  
웃어 주어서 행복하고...  
공부한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 동급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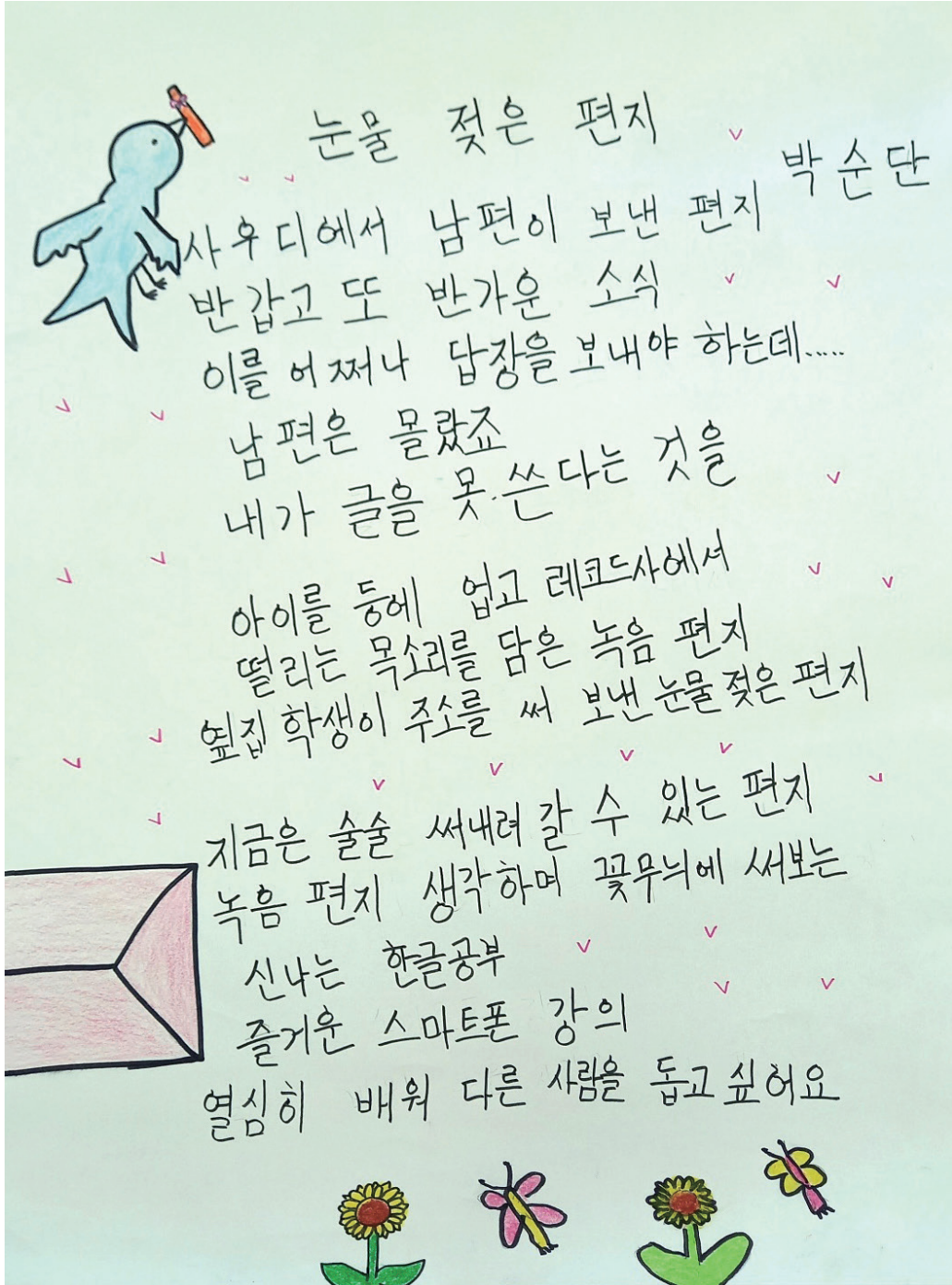
곡성군 문해교실

김재권 | 86세

밭두렁 김 매기 부부  
팔십세가 지나가다  
난 아내에게 성인문해교육  
하자고 말했던 기억난다  
아내는 왜?  
같이 하느냐고  
물었다.  
난 아내 옆자리가 좋아서...  
웃어 주어서 행복하고...  
공부한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 눈물젖은 편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박순단 | 6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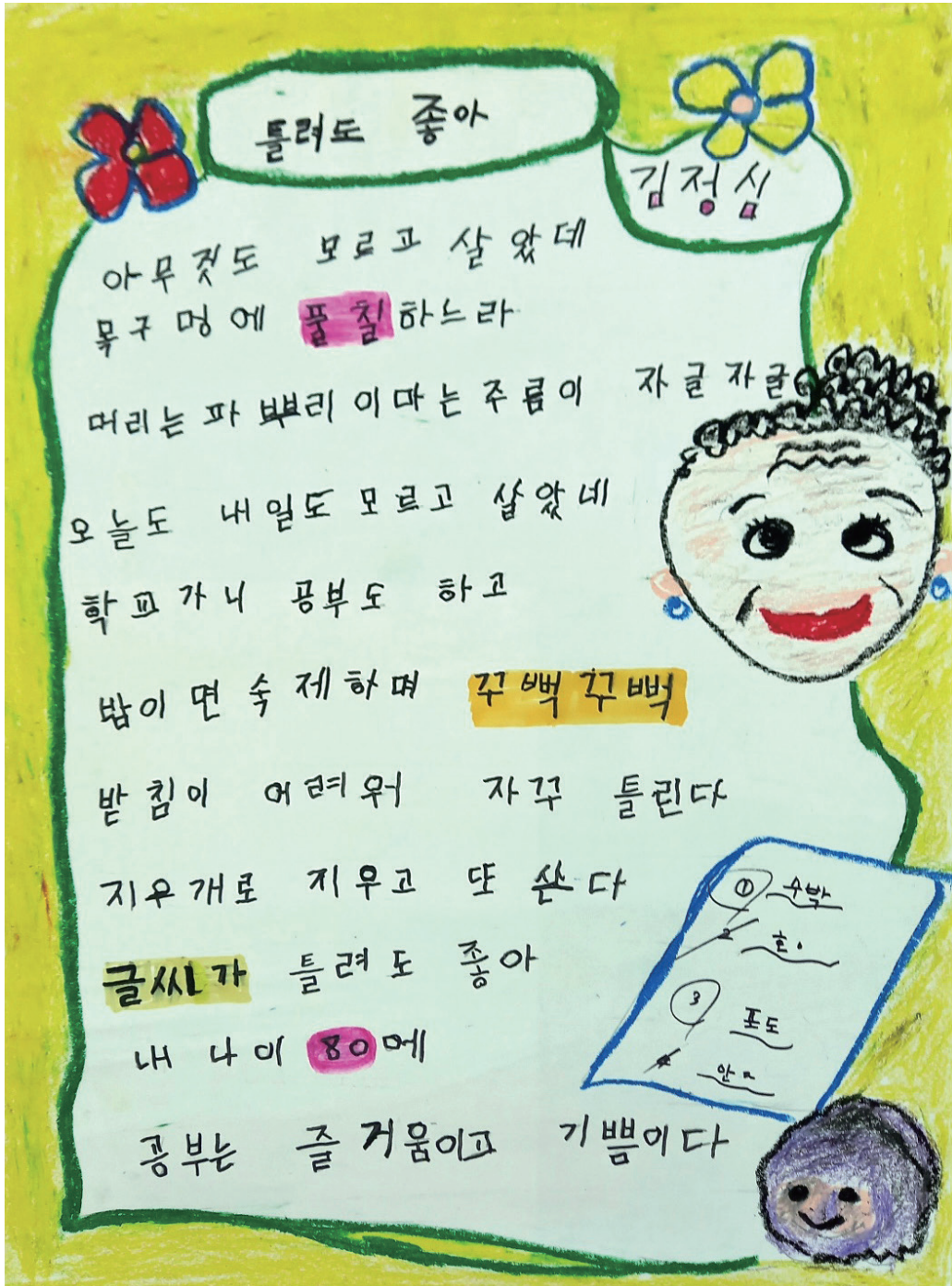
사우디에서 남편이 보낸 편지  
반갑고 또 반가운 소식  
이를 어찌나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남편은 몰랐죠  
내가 글을 못 쓴다는 것을

아이를 등에 업고 레코드사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담은 녹음 편지  
옆집 학생이 주소를 써 보낸 눈물 젖은 편지

지금은 술술 써내려 갈 수 있는 편지  
녹음 편지 생각하며 꽃무늬에 써보는  
신나는 한글공부  
즐거운 스마트폰 강의  
열심히 배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 틀려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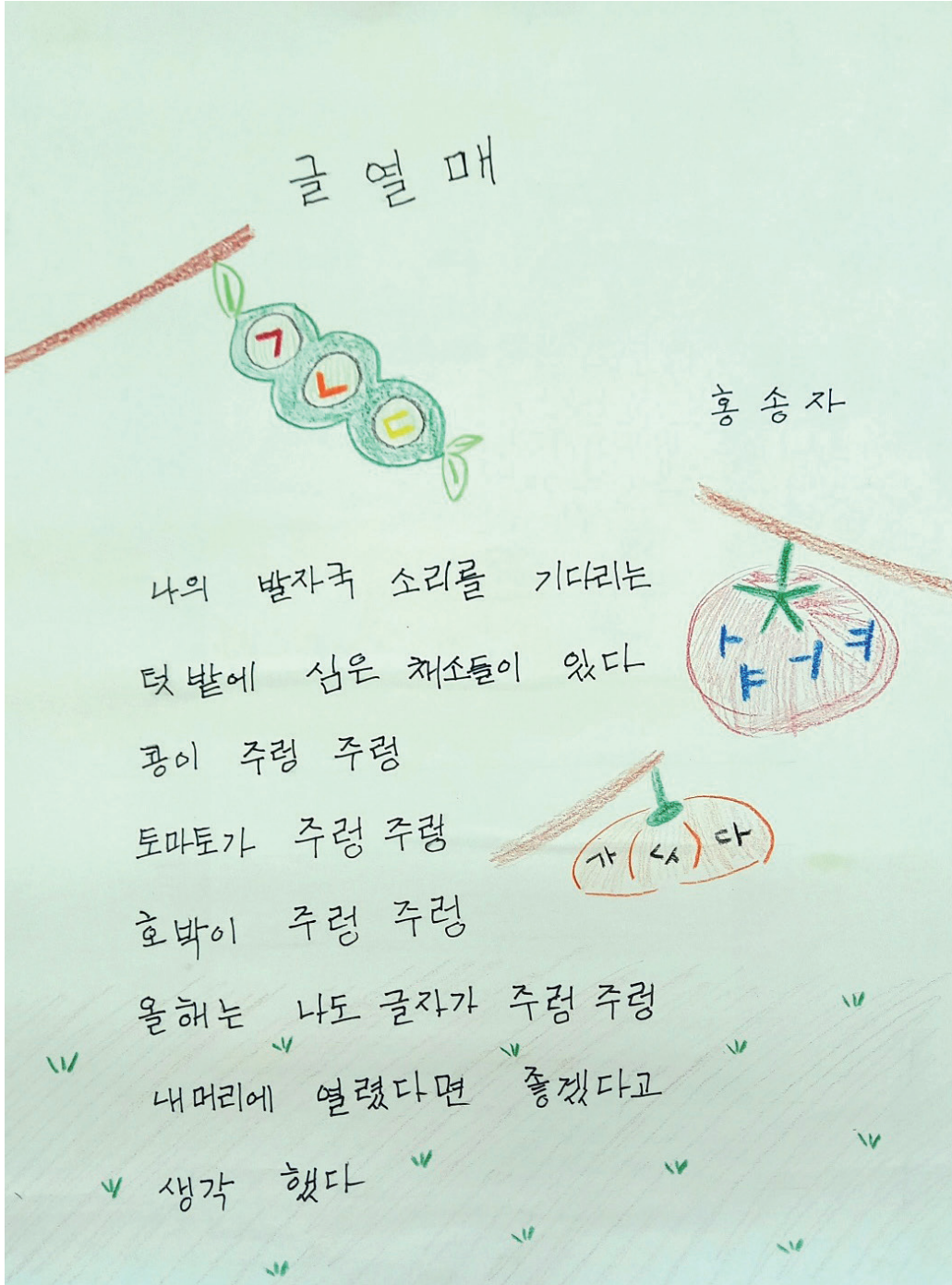
보길도 꿈꾸는 학교

김정심 | 78세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목구멍에 풀칠하느라  
머리는 파뿌리 이마는 주름이 자글자글  
오늘도 내일도 모르고 살았네  
학교가니 공부도 하고  
밤이면 숙제하며 꾸벅꾸벅  
받침이 어려워 자꾸 틀린다  
지우개로 지우고 또 쓴다  
글씨가 틀려도 좋아  
내 나이80에  
공부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 글 열매

소라종합사회복지관

홍송자 | 73세

나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있다  
콩이 주렁 주렁  
토마토가 주렁 주렁  
호박이 주렁 주렁  
홀해는 나도 글자가 주렁주렁  
내머리에 열렸다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 한 글

목포 공공도서관  
배음반 오일심



한글 너 참 요상하다  
선생님 말씀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연필만 들면 아리송하니 생각이 안 나오  
한글 너 참 요상하다  
혼자하면 다 알 것 같은데  
밤아쓰기만 하면  
앞이 캄캄 하니 안 보인다.

#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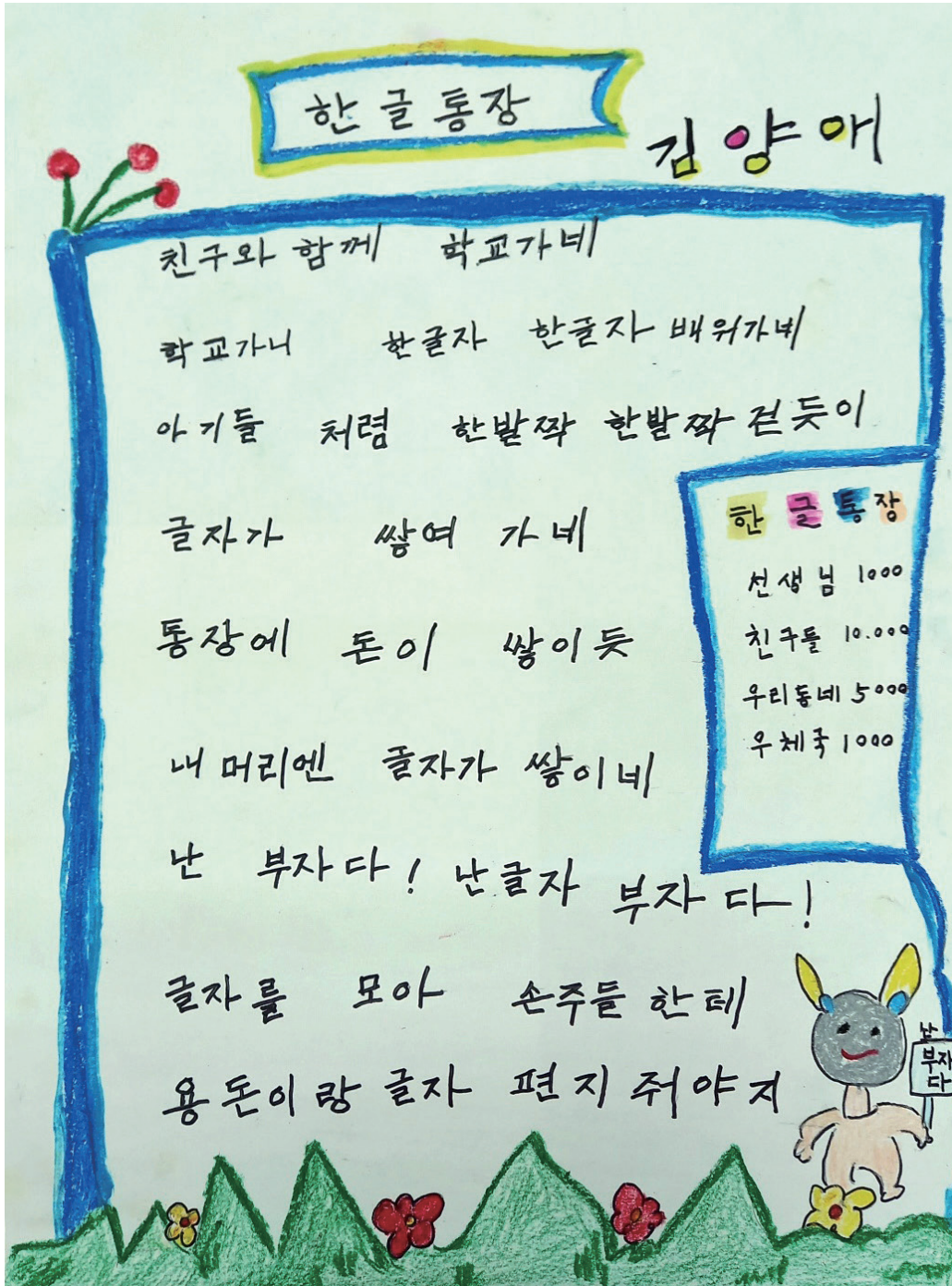
목포공공도서관

오일심 | 78세

한글 너 참 요상하다  
선생님 말씀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 데  
연필만 들면 아리송하니 생각이 안 나요  
한글 너 참 요상하다  
혼자하면 다 알 것 같은데  
받아쓰기만 하면  
앞이 캄캄하니 안보인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 한글통장

보길도 꿈꾸는 학교

김양애 | 77세

친구와 함께 학교가네  
학교가니 한글자 한글자 배워가네  
아기들 처럼 한발짝 한발짝 걷듯이  
글자가 쌓여 가네  
통장에 돈이 쌓이듯  
내 머리엔 글자가 쌓이네  
난 부자다! 난 글자 부자다!  
글자를 모아 손주들한테  
용돈이랑 글자 편지 줘야지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그래도 학교에가네  
정안임  
고금비전한글학교

고구마 순이 다 말라버렸어  
그래도 다시 심었네  
고구마 심다가 났어 잘네  
그래도 다시 심었네

학교에 가다가 오뎀바이사고나서  
리턴 반을 입학했어  
지팡이 잡고 다시 학교에가네

아무리 애를 써서도  
밭참을 몰래

그래도 다시 학교에가네



## 그래도 학교에 가네

고금비전한글학교

정안임 | 77세

고구마 순이 다 말라버렸어  
그래도 다시 심었네  
고구마 심다가 넘어졌네  
그래도 다시 심었네

학교에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나서  
2년 반을 입원했어  
지팡이 짚고 다시 학교에 가네

아무리 애를 써도  
받침을 몰겠어  
그래도 다시 학교에 가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희망을 안겨준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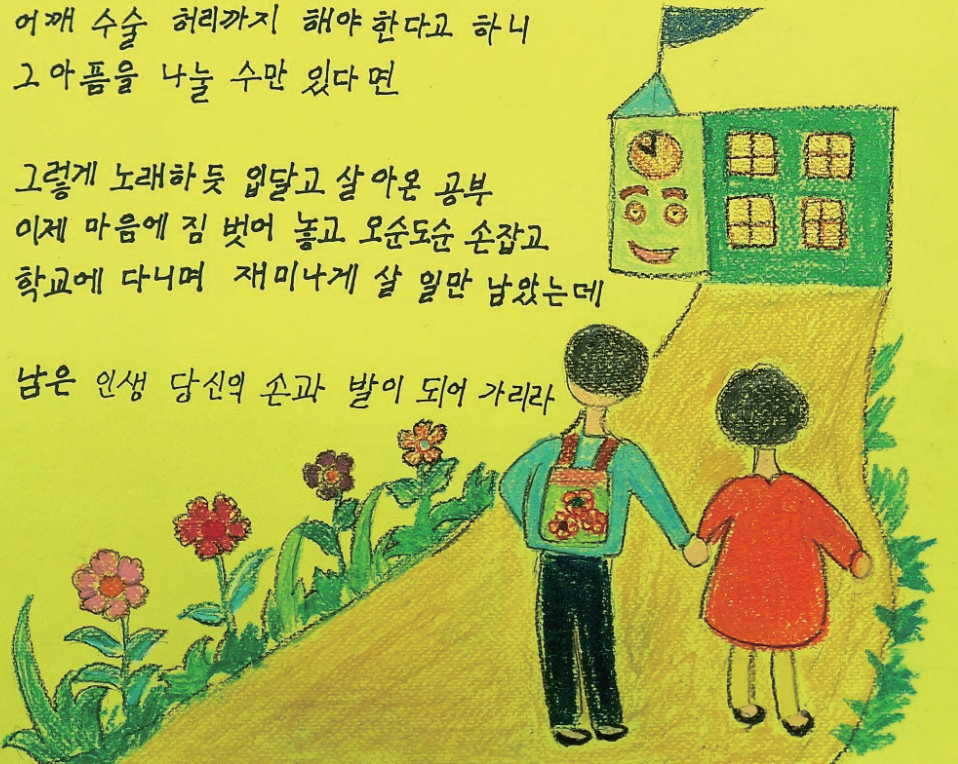
정백안

어린 나이에 보잘 것 없는 나를 만나  
평생을 시장에서 얼음물에 손 담가가며  
애들 공부시키랴 먹고 살기 바빠 고생만하다  
온 몸은 여기 저기 종합병원

어디서 먼저 손을 써야 할지  
갈비뼈 다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깨 수술 허리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그 아픔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렇게 노래하듯 입달고 살아온 공부  
이제 마음에 짐 벗어 놓고 오순도순 손잡고  
학교에 다니며 재미나게 살 일만 남았는데

남은 인생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가리라



# 희망을 안겨준 당신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정백안 | 77세

어린 나이에 보잘 것 없는 나를 만나  
평생을 시장에서 얼음물에 손 담가가며  
애들 공부시키라 먹고 살기 바빠 고생만하다  
온 몸은 여기 저기 종합병원

어디서 먼저 손을 써야 할지  
갈비뼈 다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깨 수술 허리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그 아픔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렇게 노래하듯 입달고 살아온 공부  
이제 마음에 짐 벗어 놓고 오순도순 손잡고  
학교에 다니며 재미나게 살 일만 남았는데

남은 인생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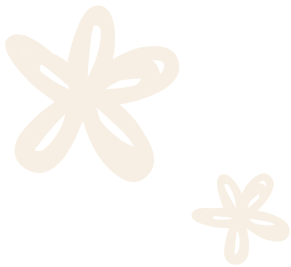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나의 꿈

동여수 노인복지관

양춘엽

내 어린 시절의 꿈  
다 어디로 가버렸나  
칠십이 넘고 여든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배우는 한글공부  
깜박 깜박 빨간 신호등 처럼  
기억이 자꾸만 멈추어 선다.  
늦었지만 함께 하는  
글공부 친구들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 또다짐 해본다.



## 나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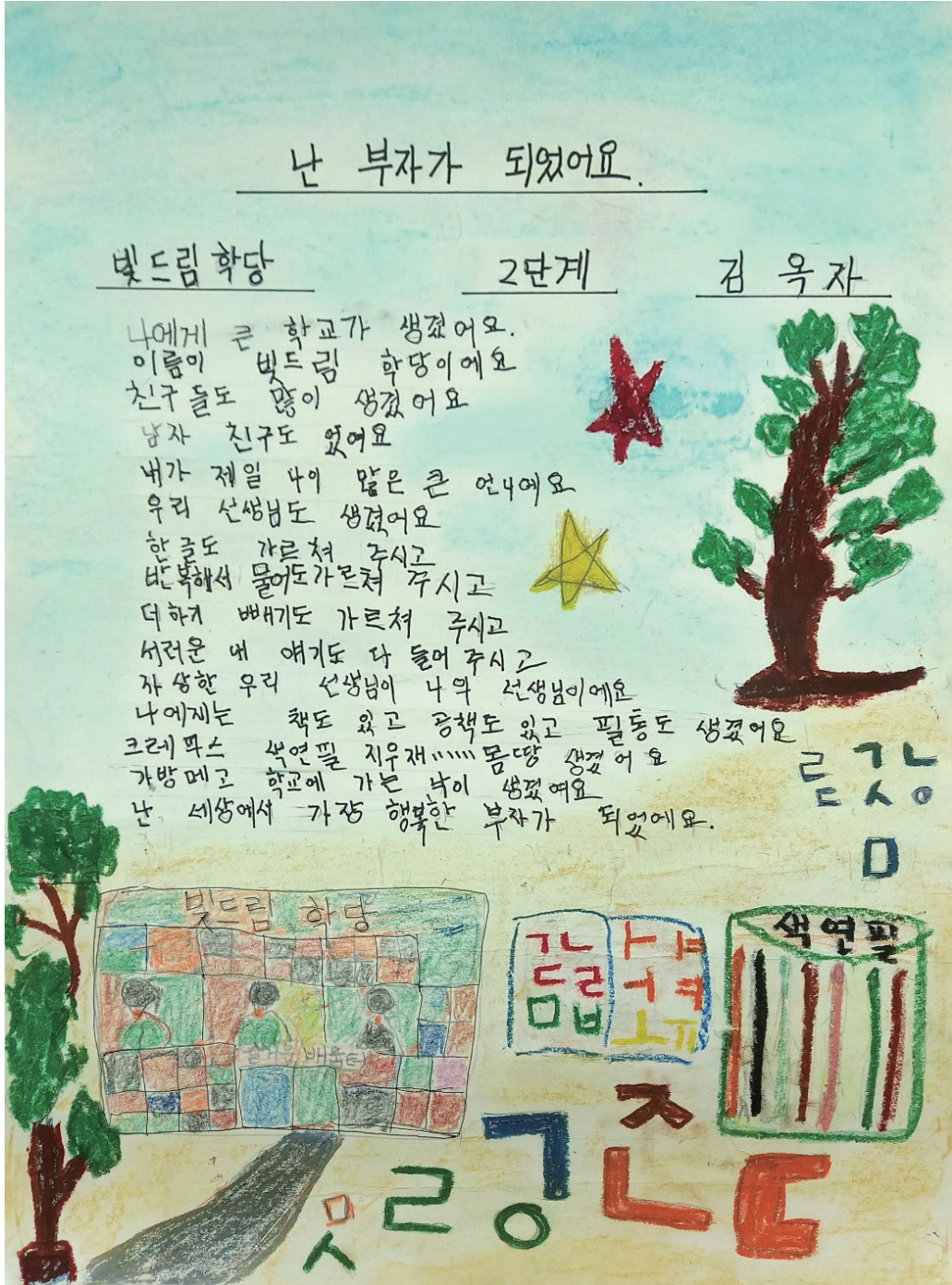
여수시 문해교실

양춘엽 | 75세

내 어린 시절의 꿈  
다 어디로 가버렸나  
칠십이 넘고 여든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배우는 한글공부  
깜박깜박 빨간 신호등처럼  
기억이 자꾸만 멈추어 선다.  
늦었지만 함께 하는  
글공부 친구들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 또 다짐 해본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 난 부자가 되었어요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김옥자 | 75세

나에게 큰 학교가 생겼어요  
이름이 빛드림 학당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남자 친구도 있어요  
내가 제일 나이 많은 큰 언니예요  
우리 선생님도 생겼어요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서 물어도 가르쳐 주시고  
더하기 빼기도 가르쳐 주시고  
서러운 내 애기도 다 들어 주시고  
자상한 우리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이예요  
나에게는 책도 있고 공책도 있고 필통도 생겼어요  
크레파스 색연필 지우재……몸땡 생겼어요  
가방메고 학교에 가는 날이 생겼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되었어요.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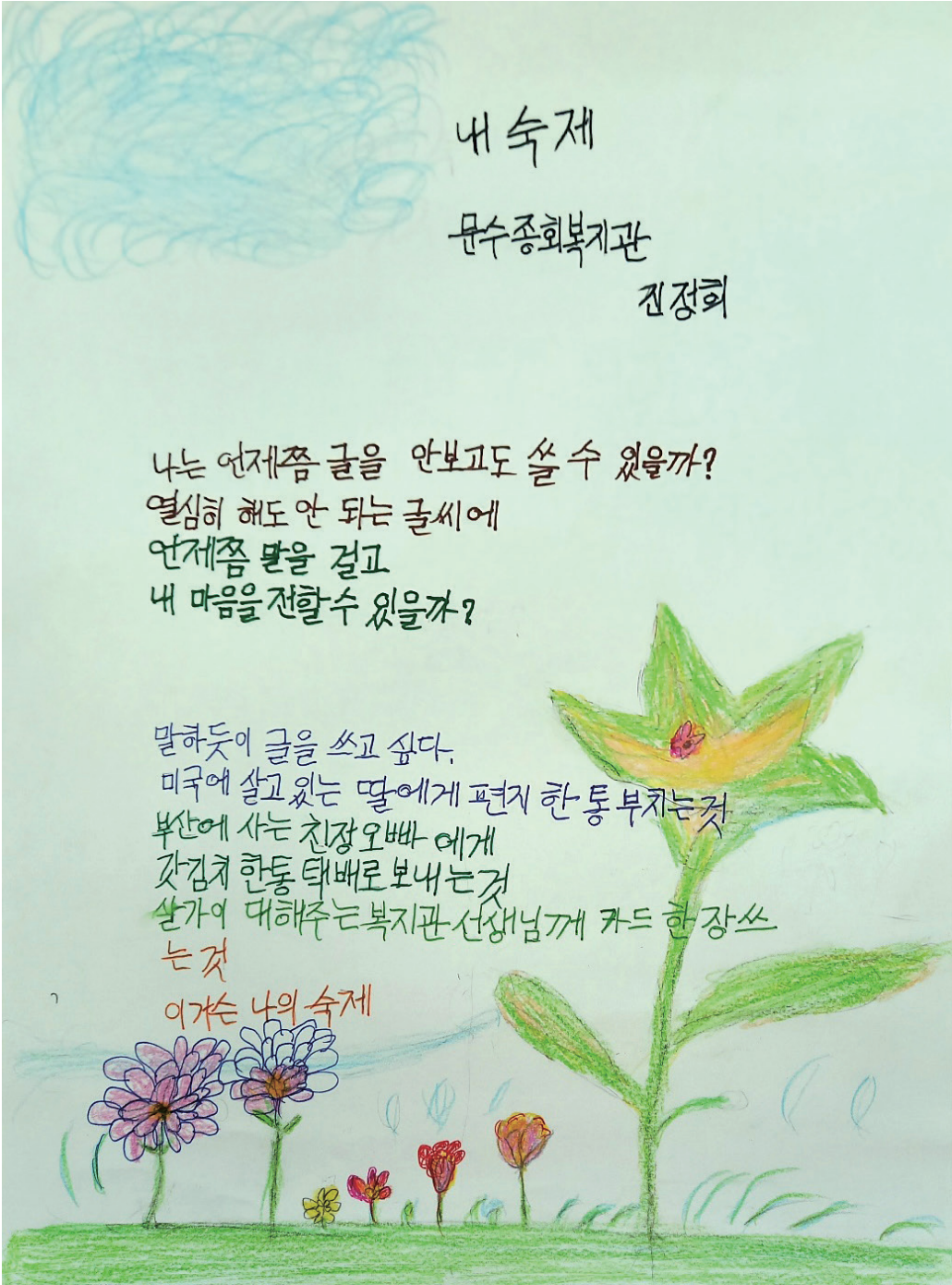
내 숙제

문수종회복지관

진정희

나는 언제쯤 글을 안보고도 쓸 수 있을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글씨에  
언제쯤 받을 걸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하듯이 글을 쓰고 싶다.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편지 한 통 부치는 것  
부산에 사는 친장오빠에게  
갓김치 한동 택배로 보내는 것  
살가이 대해주는 복지관 선생님께 카드 한 장 쓰  
는 것  
이제는 나의 숙제



# 내 숙제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진정희 | 76세

나는 언제쯤 글을 안보고도 쓸 수 있을까?

열심히 해도 안되는 글씨에

언제쯤 말을 걸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하듯이 글을 쓰고 싶다.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편지 한 통 부치는 것

부산에 사는 친정오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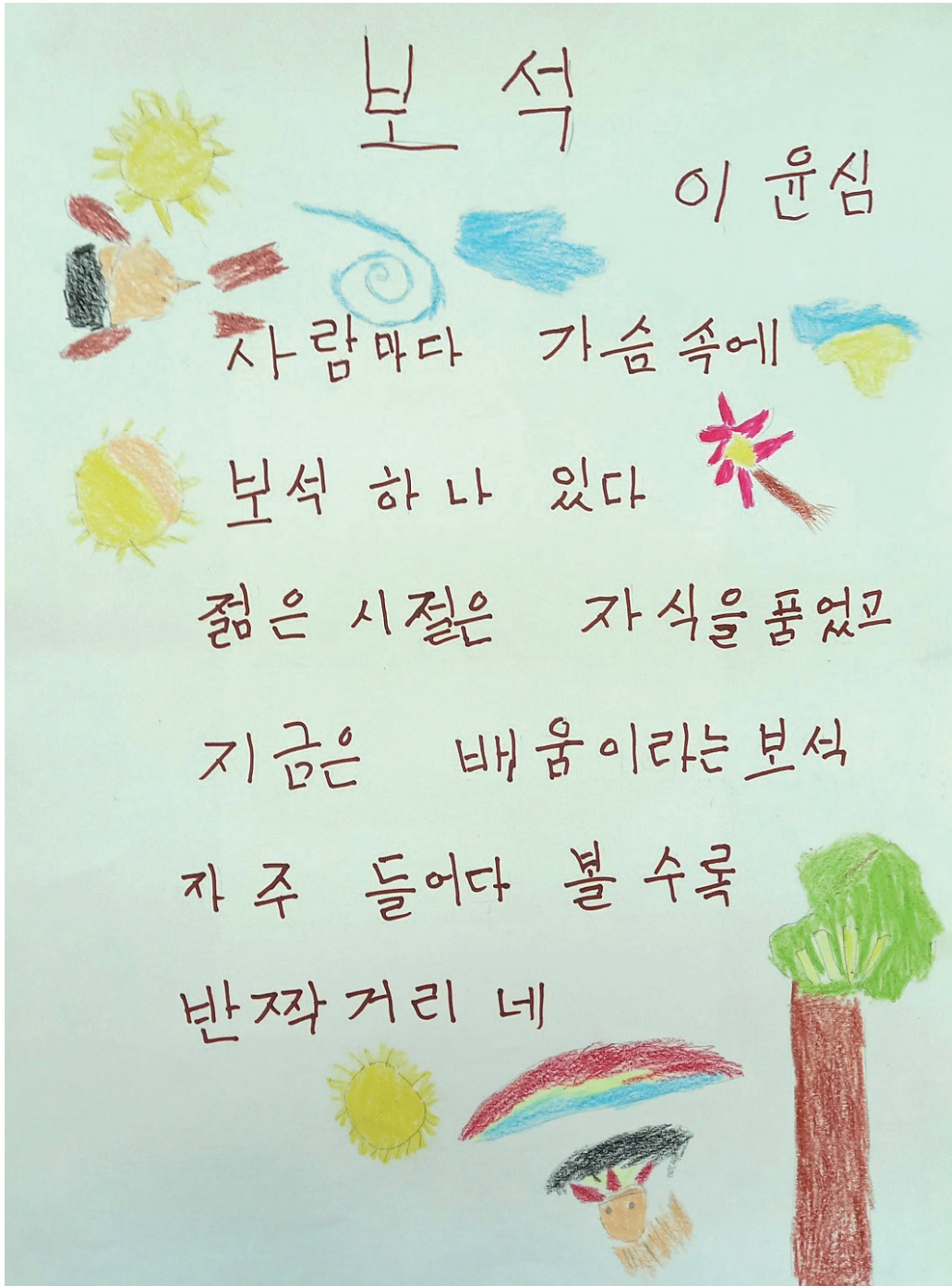
갓김치 한 통 택배 보내는 것

살가이 대해주는 복지관 선생님께 카드 한 장 쓰는 것

이거슨 나의 숙제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 보석

무안군 문해교실

이윤심 | 75세

사람마다 가슴속에  
보석 하나 있다  
젊은 시절은 자식을 품었고  
지금은 배움이라는 보석  
자주 들어다 볼수록  
반짝거리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화단의 장미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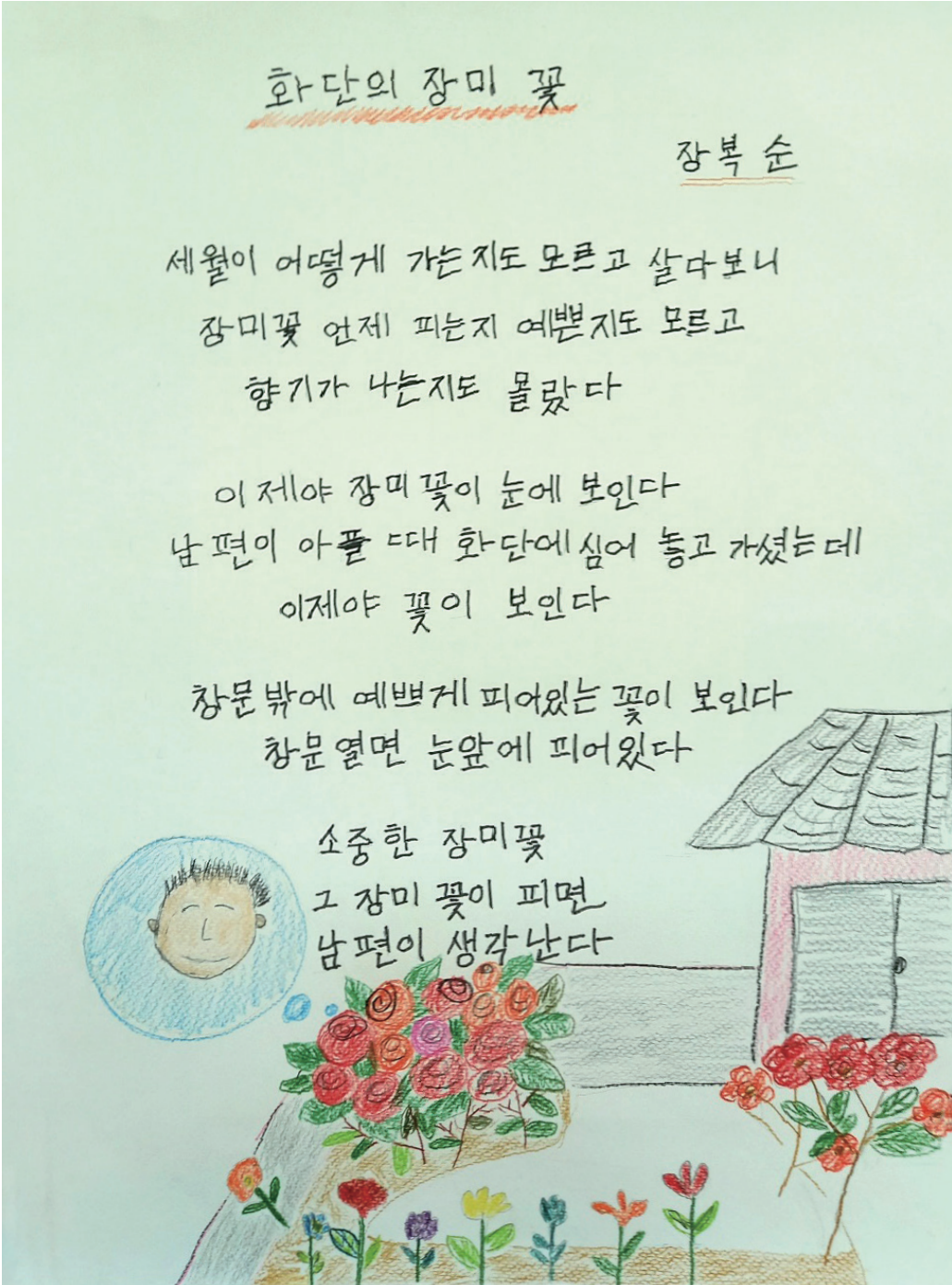
장복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보니  
장미꽃 언제 피는지 여별지도 모르고  
향기가 나는지도 몰랐다

이제야 장미꽃이 눈에 보인다  
남편이 아플 때 화단에 심어 놓고 가셨는데  
이제야 꽃이 보인다

창문밖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인다  
창문 열면 눈앞에 피어있다

소중한 장미꽃  
그 장미꽃이 피면  
남편이 생각난다



## 화단의 장미꽃

담양공공도서관

장복순 | 68세

세월이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르고 살다보니  
장미꽃 언제 피는지 예쁜지도 모르고  
향기가 나는 지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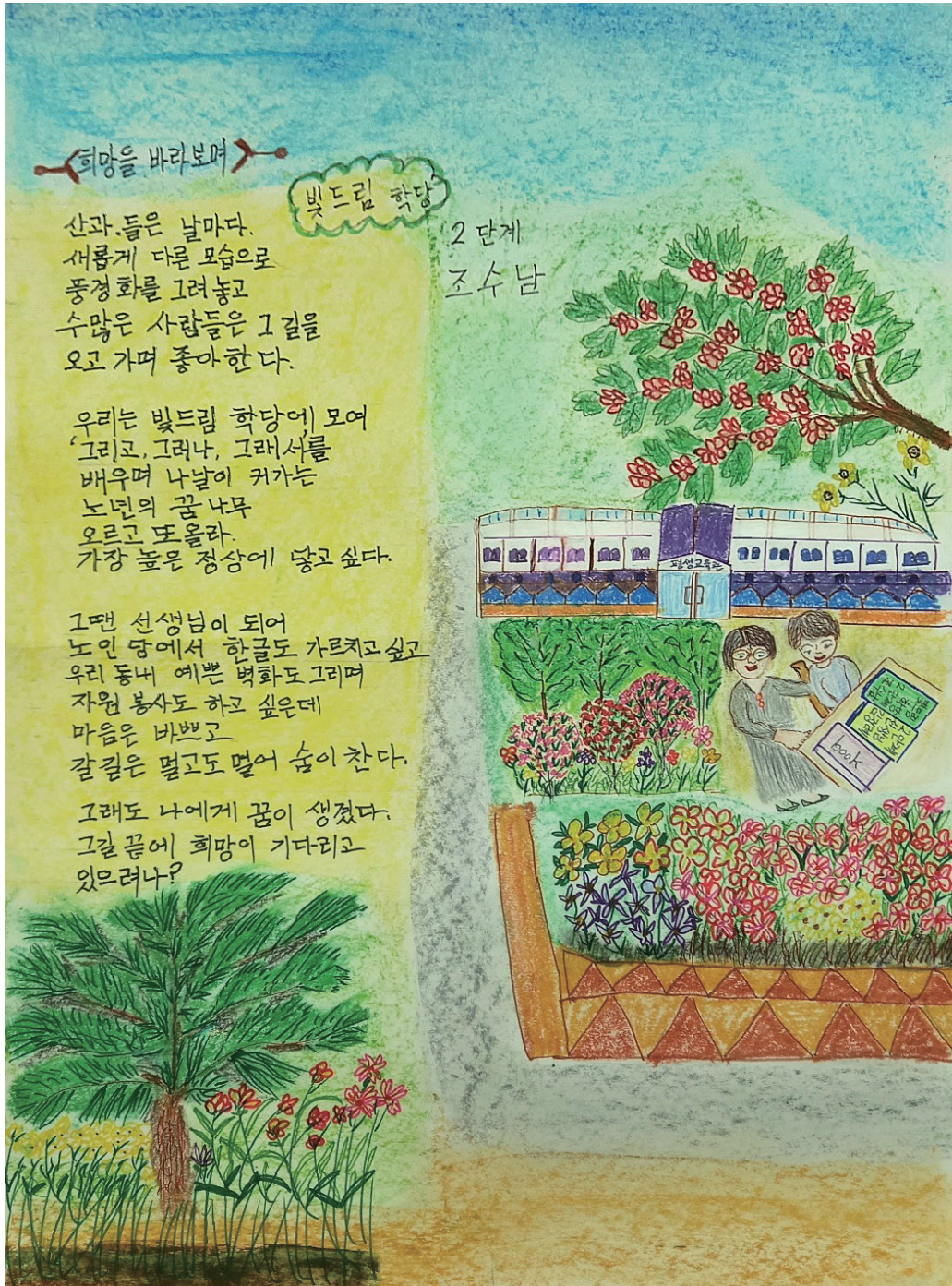
이제야 장미꽃이 눈에 보인다  
남편이 아플 때 화단에 심어 놓고 가셨는데  
이제야 꽃이 보인다

창문 밖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인다  
창문열면 눈앞에 피어있다

소중한 장미꽃  
그 장미 꽃이 피면  
남편이 생각난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 희망을 바라보며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조수남 | 67세

산과 들은 날마다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풍경화를 그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오고 가며 좋아한다.

우리 빛드림 학당에 모여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를  
배우며 나날이 커가는  
노년의 꿈나무  
오르고 또올라  
가장 높은 정상에 닿고 싶다.

그땐 선생님이 되어  
노인당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싶고  
우리 동네 예쁜 벽화도 그리며  
자원봉사도 하고 싶은데  
마음은 바쁘고  
갈길은 멀고도 멀어 숨이 찬다.

그리도 나에게 꿈이 생겼다.  
그길 끝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으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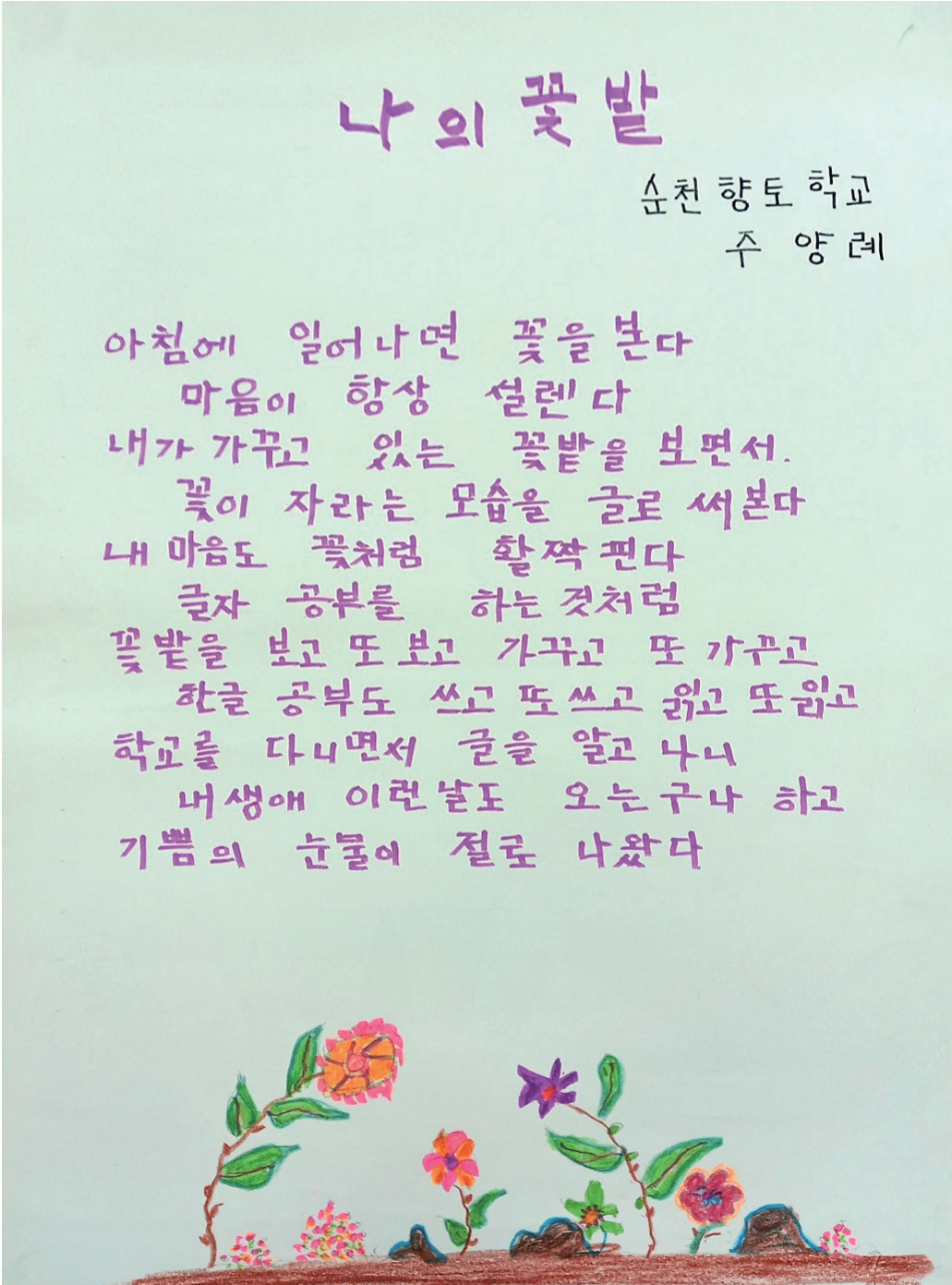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 나의 꽃밭

순천 향토 학교  
주 양 레

아침에 일어나면 꽃을 본다  
마음이 항상 설렌다  
내가 가꾸고 있는 꽃밭을 보면서.  
꽃이 자라는 모습을 글로 써본다  
내 마음도 꽃처럼 활짝 핀다  
글자 공부를 하는 것처럼  
꽃밭을 보고 또 보고 가꾸고 또 가꾸고  
한글 공부도 쓰고 또쓰고 읽고 또읽고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알고 나니  
내생애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고  
기쁨의 눈물이 절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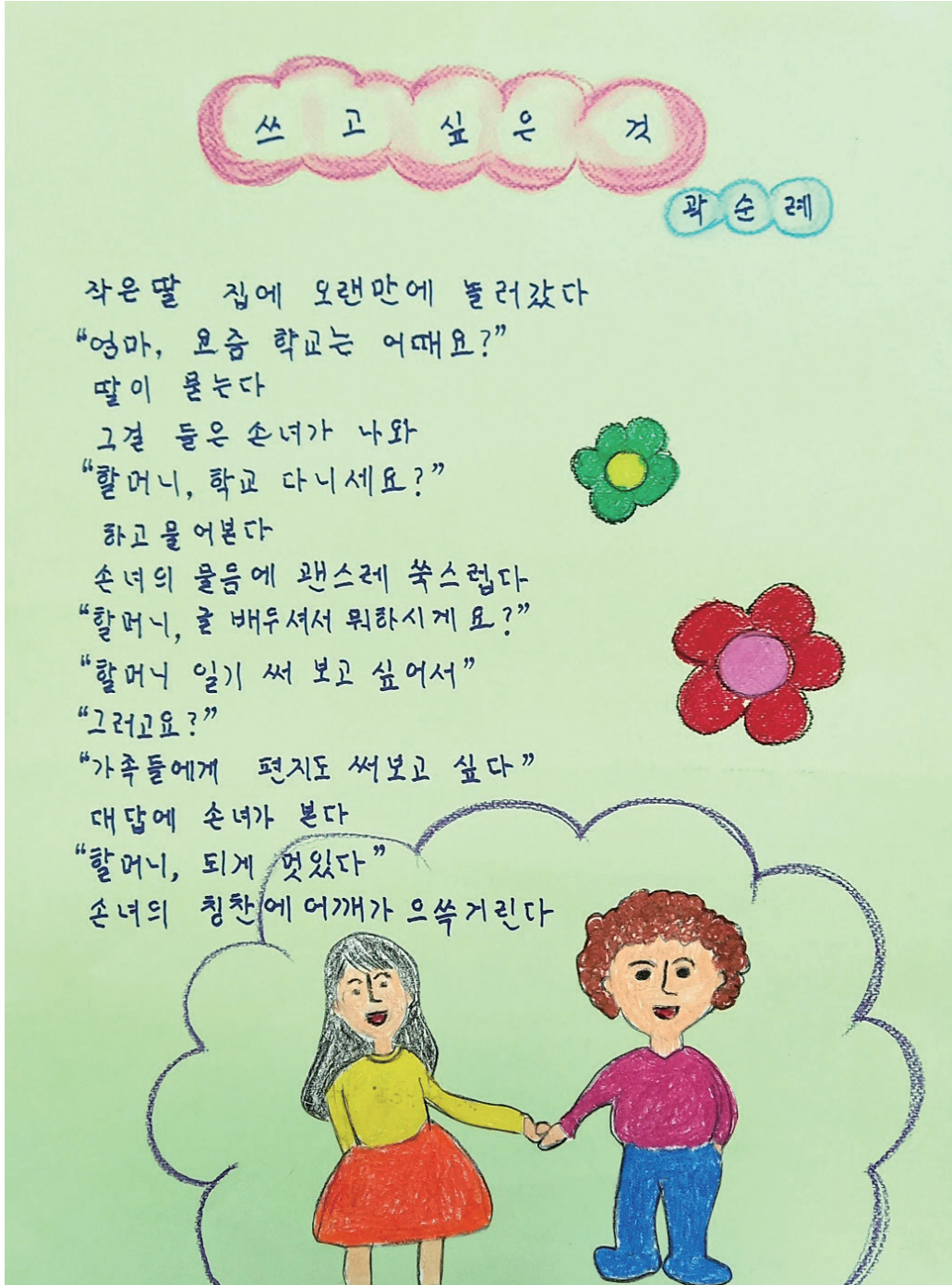
## 나의 꽃밭

순천향토학교  
주양례 | 64세

아침에 일어나면 꽃을 본다  
마음이 항상 설렌다  
내가 가꾸고 있는 꽃밭을 보면서  
꽃이 자라는 모습을 글로 써본다  
내 마음도 꽃처럼 활짝 핀다  
글자 공부를 하는 것처럼  
꽃밭을 보고 또 보고 가꾸고 또 가꾸고  
한글 공부도 쓰고 또 쓰고 읽고 또 읽고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알고 나니  
내 생애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고  
기쁨의 눈물이 절로 나왔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 쓰고 싶은 것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곽순례 | 73세

작은딸 집에 오랜만에 놀러갔다  
“엄마, 요즘 학교는 어때요?”  
딸이 묻는다  
그걸 들은 손녀가 나와  
“할머니, 학교 다니세요?”  
하고 물어본다  
손녀의 물음에 괜스레 쑥스럽다  
“할머니, 글 배우셔서 뭐하시게요?”  
“할머니 일기 써 보고 싶어서”  
“그리고요?”  
“가족들에게 편지도 써보고 싶다”  
대답에 손녀가 본다  
“할머니, 되게 멋있다”  
손녀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거린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만학도

김유자

나의 이룰적 꿈은  
까만 교복에  
화얀 카라가달린 예쁜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다는 꿈!

그러나 나의 가방은  
허리에 메고 다는 보자기 뿐.  
어루미 못 한 나의 꿈!

어느덧 내 나의 육십  
마침내 꿈을 이루었네.  
끝까지 포기 하지 않으면  
세월은 나를 버리지 않네.

나는 오늘  
교복대신 단정한 옷을 차려 입고  
책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간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 만학도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김유자 | 61세

나의 어릴적 꿈은  
까만 교복에  
하얀 카라가 달린 예쁜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다니는 꿈!

그러나 나의 가방은  
허리에 메고 다니는 보자기 뿐.  
이루지 못한 나의 꿈!

어느덧 나이 육십  
마침내 꿈을 이루었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세월은 나를 버리지 않네.

나는 오늘  
교복 대신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책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간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내 인생의 꿈

나주공공도서관

김옥탄

길지도 짧지도 않은 나의 60 평생  
그 세월은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라  
누가 다시 그 세월을 살라 하면  
돈을 여수로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산다  
일밖에 모르고 몸 아낄 줄 모르게 살았다  
남편이 떠나자 정신이 번쩍났다  
딸을 학부모 삼아 도서관 한글반 입학해서  
일 년을 언니 친구들과 결석 한번 없이 공부했다  
코로나와 이런 저런 힘든 날을 견뎌왔다  
다시 도서관에 공부할 수 있으니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늦게 잡은 연필 놓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몰라도  
남들 앞에서 잘 읽고 써서 자신감 갖고  
이제라도 작은 소망 이루어 살고 싶다.



## 내 인생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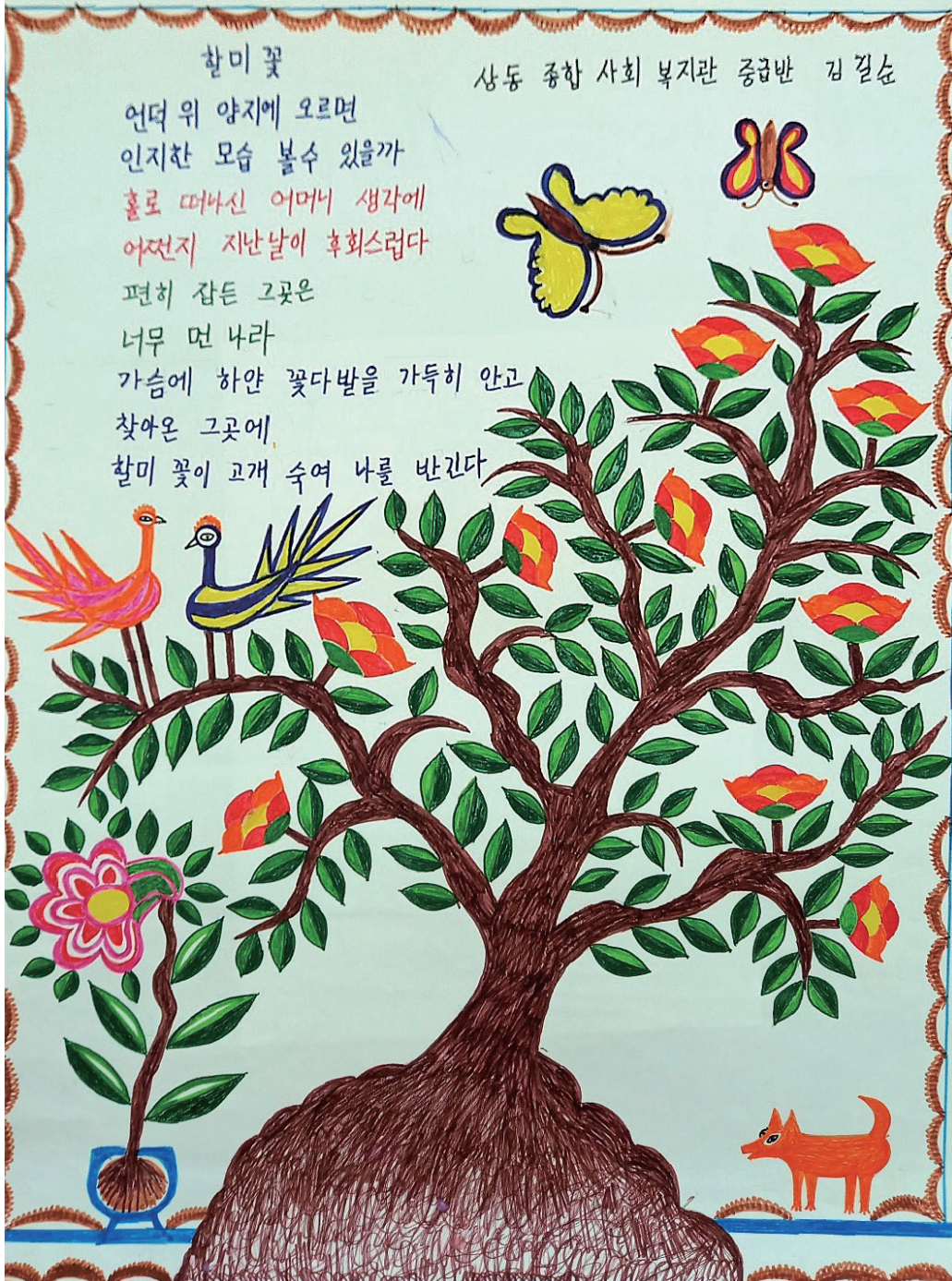
나주공공도서관

김옥단 | 64세

길지도 짧지도 않은 나이 60 평생  
그 세월은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라  
누가 다시 그 세월을 살라 하면  
돈을 억수로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산다.  
일밖에 모르고 몸 아낄 줄 모르게 살았다.  
남편이 떠나자 정신이 번쩍났다.  
딸을 학부모 삼아 도서관 한글반 입학해서  
일 년을 언니 친구들과 결석 한 번 없이 공부했다.  
코로나와 이런저런 힘든 날을 견뎌왔다.  
다시 도서관에 공부할 수 있으니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늦게 잡은 연필 놓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몰라도  
남들 앞에서 잘 읽고 써서 자신감 갖고  
이제라도 작은 소망 이루며 살고 싶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할미꽃

상동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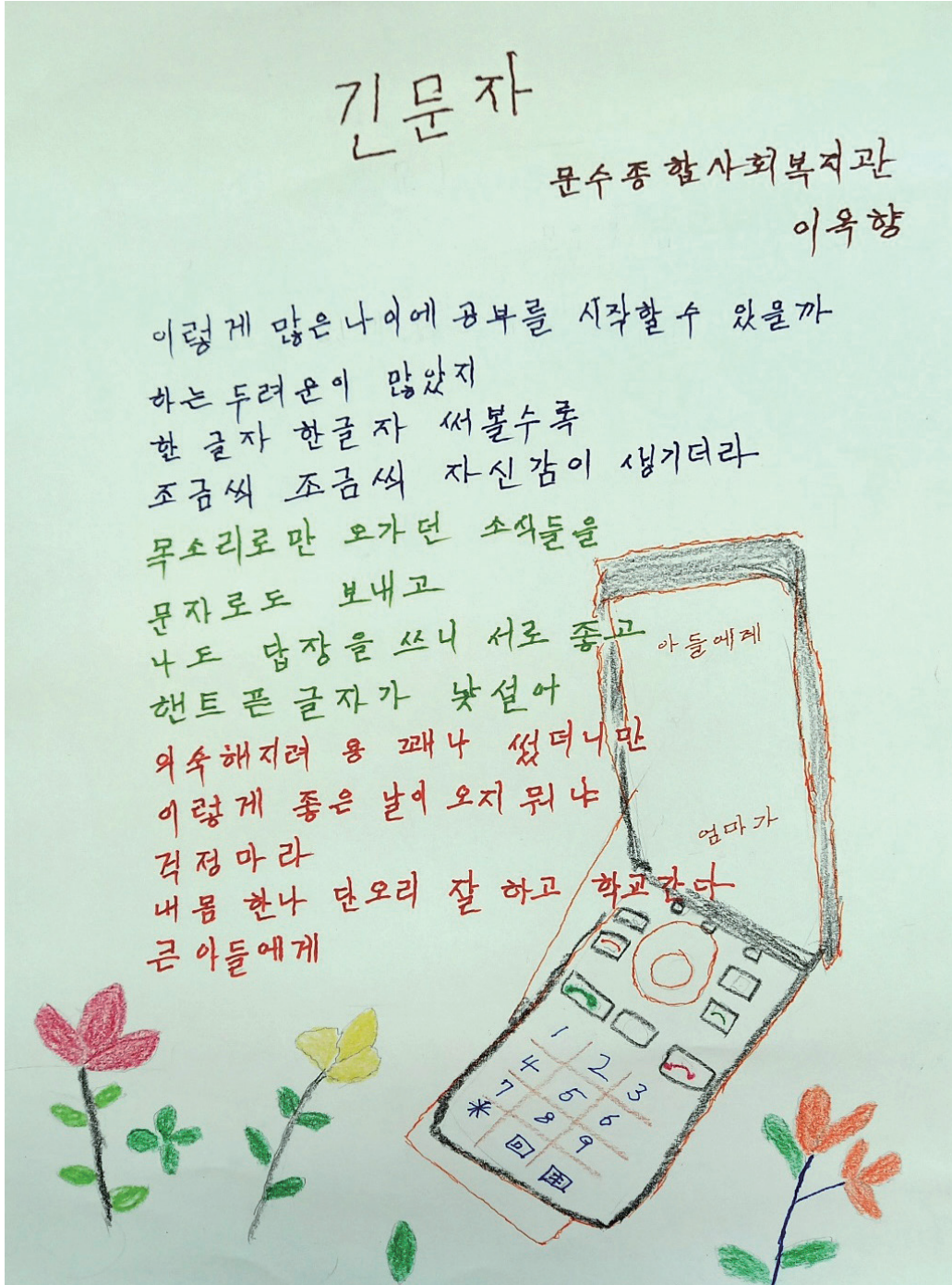
김길순 | 74세

할미꽃  
언덕 위 양지에 오르면  
인지한 모습 볼 수 있을까  
홀로 떠나신 어머니 생각에  
어쩐지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  
편히 잠든 그곳은  
너무 먼 나라  
가슴에 하얀 꽃다발을 가득히 안고  
찾아온 그곳에  
할미 꽃이 고개 숙여 나를 반긴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긴문자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이옥향 | 82세

이렇게 많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았지  
한 글자 한 글자 써볼수록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  
목소리로만 오가던 소식들을  
문자로도 보내고  
나도 답장을 쓰니 서로 좋고  
핸드폰 글자가 낫설어  
익숙해지려 용 꽤나 썼더니만  
이렇게 좋은 날이 오지 뭐냐  
걱정마라  
내 몸 한나 단오리 잘하고 학교간다  
클 아들에게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오십 원과 오십 만원

김순남

오늘은 은행 가는 날  
돈을 찾으러 간다  
출금 용지에 오십 원을 쓰고  
출자례가 되어 직원에게 주었다

“할머니 오십 원 찾아다가 어디에 쓰실래요?”

“아니, 아니. 나 오십만 원 찾을 거요!”

그만 실수로 만 자를 빼고 쓰고 말았는데 -

그럴 수도 있어 직원도 나도 빙그레 웃고 말았지

나는 나와 약속한다

돈 찾을 때는 만 자나 천 자를

절대로 절대로

빼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찾으실 때  
오십원



## 오십원과 오십만원

영광공공도서관

김순남 | 7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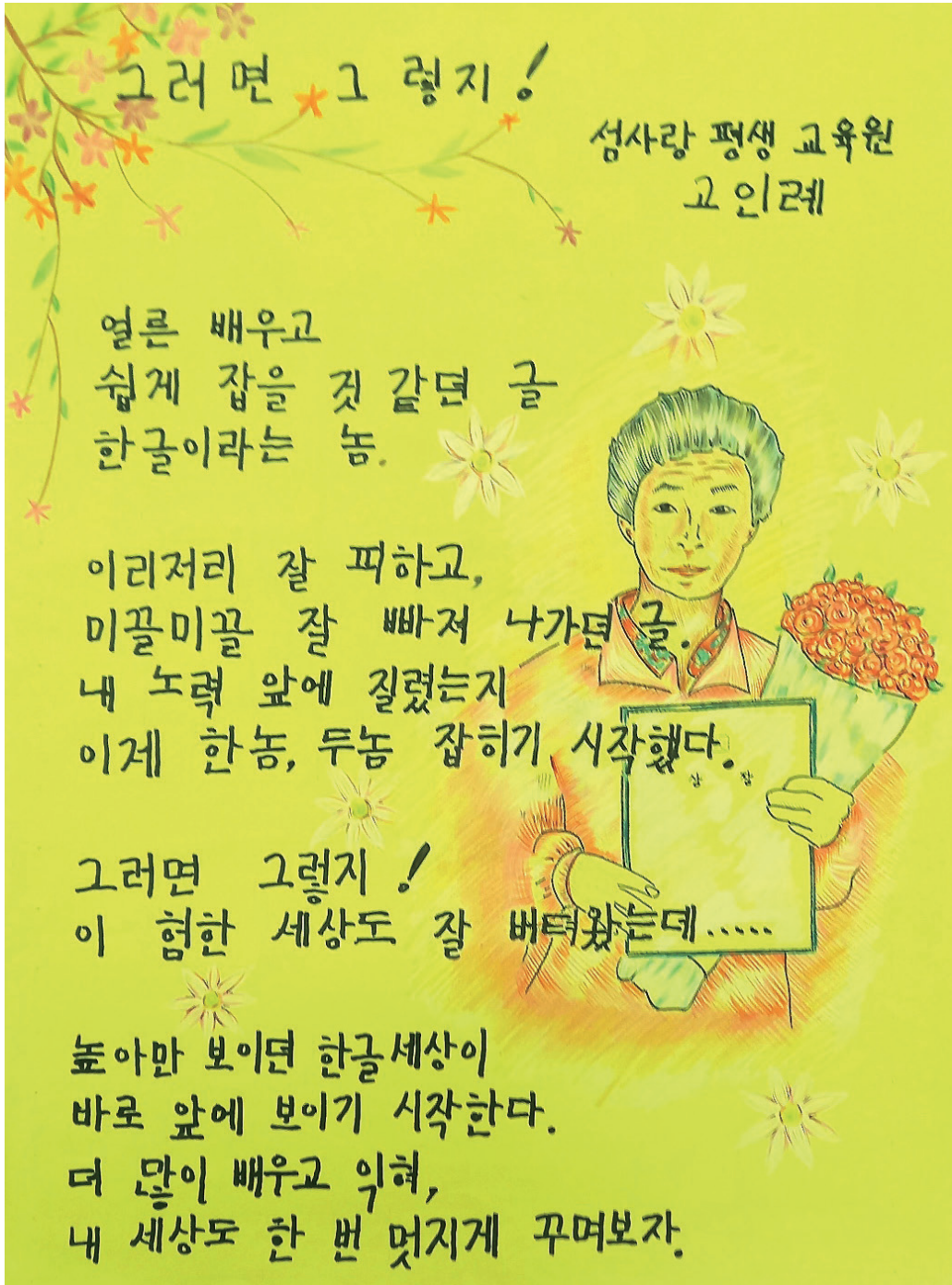
오늘은 은행 가는 날  
돈을 찾으러 간다  
출금용지에 오십원을 쓰고  
차례가 되어 직원에게 주었다

“할머니 오십원 찾아다가 어디에 쓰실래요?”  
“아니, 아니, 나 오십만원 찾을 거요.”  
그만 실수로 만 자를 빼고 쓰고 말았네-  
그럴 수도 있어 직원도 나도 빙그레 웃고 말았지

나는 나와 약속한다  
돈 찾을 때는 만 자나 천 자를  
절대로 절대로  
빼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그러면 그렇지

섬사랑 평생교육원

고인례 | 80세

얼른 배우고  
쉽게 잡을 것 같던 글  
한글이라는 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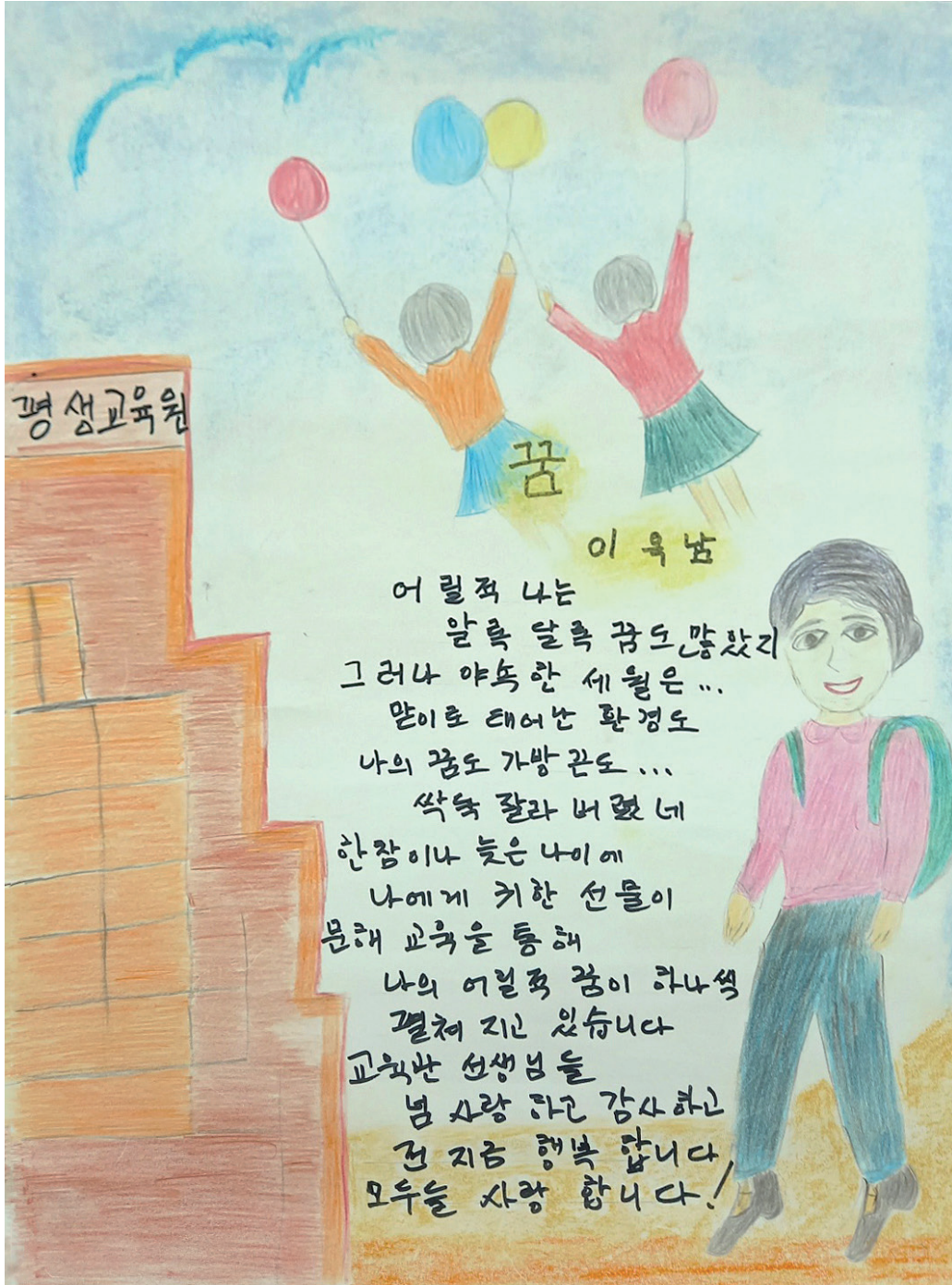
이리저리 잘 피하고,  
미끌미끌 잘 빠져 나가던 글.  
내 노력 앞에 질렸는지  
이제 한놈, 두놈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 험한 세상도 잘 버텨왔는데……

높아만 보이던 한글 세상이  
바로 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더 많이 배우고 익혀,  
내 세상도 한 번 멋지게 꾸며보자.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꿈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이옥남 | 71세

어릴적 나는  
알록달록 꿈도 많았지  
그러나 야속한 세월은...  
말이로 태어난 환경도  
나의 꿈도 가방 끈도...  
싹둑 잘라 버렸네  
한참이나 늦은 나이에  
나에게 귀한 선물이  
문해교육을 통해  
나의 어릴적 꿈이 하나씩  
펼쳐 지고 있습니다.  
교육관 선생님들  
넘 사랑하고 감사하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문자를 보내보고 싶다.

광양제일 김향순

서른 넷에 혼자 되어서 내 나이  
85 세이니 50년이 넘었다  
젊어 농사 짓고 살 때에 힘에 부쳐  
무거운 것을 들때가 제일 힘들었다  
회의를 가도 서류를 읽을 수 없어  
달달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글을  
볼 수 있어 세상 사는 맛이 난다.  
장년에 경노당에서 도우미를 하며  
식재료를 써서 읍사무소에 갔더니  
글씨를 잘 썼다고 칭찬도 받았다  
더 공부하여 자식들에게 문자도  
보내며 내 맘을 전하고 싶다.



## 문자를 보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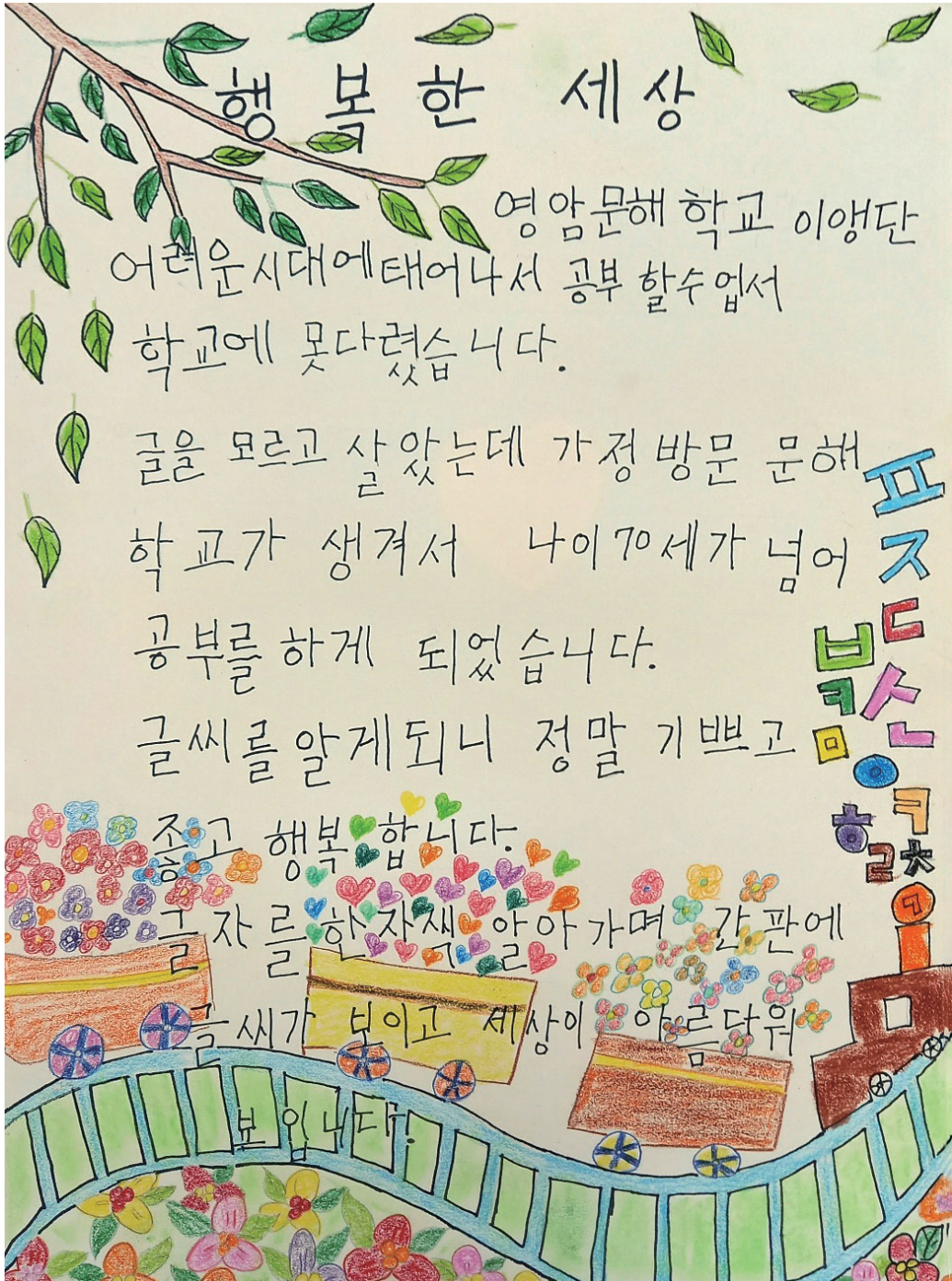
광양시 문해교실

김향순 | 83세

세론 넷에 혼자 되어서 내 나이  
85세이니 50년이 넘었다  
젊어 농사 짓고 살 때에 힘에 부쳐  
무거운 것을 들때가 제일 힘들었다  
회의를 가도 서류를 읽을 수 없어  
답답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글을  
볼 수 있어 세상 사는 맛이 난다.  
장년에 경노당에서 도우미를 하며  
식재료를 써서 읍사무소에 갔더니  
글씨를 잘 썼다고 칭찬도 받았다  
더 공부하여 자식들에게 문자도  
보내며 내 맘을 전하고 싶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행복한 세상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이영단 | 76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공부 할 수 없어서  
학교에 못다녔습니다.

글을 모르고 살았는데 가정방문 문해  
학교가 생겨서 나에70세가 넘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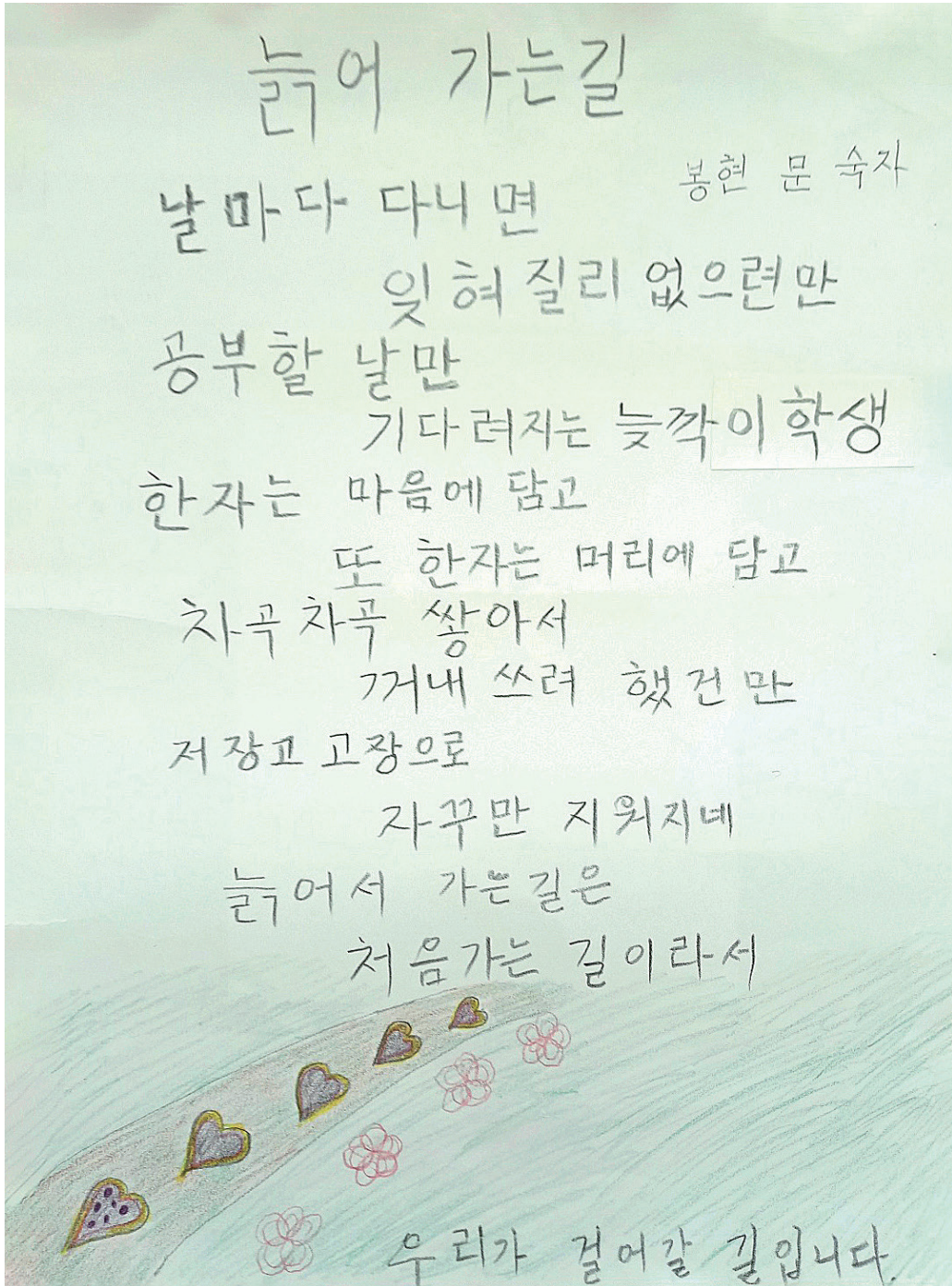
글씨를 알게되니 정말 기쁘고

좋고 행복합니다.

글자를 한자씩 알아가며 간판에 글씨가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늘어가는 길

곡성군 문해교실

문숙자 | 73세

날마다 다니면  
잊혀질리 없으련만  
공부할 날만  
기다려지는 늦각이 학생  
한자는 마음에 담고  
또 한자는 머리에 담고  
차곡차곡 쌓아서  
꺼내 쓰려 했건만  
저장고 고장으로  
자꾸만 지워지네  
늘어서 가는 길은  
처음가는 길이라서  
우리가 걸아갈 길입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며늘아 요것 잔 사온나

완도 평생교육원

이영숙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두부 ....

내가 하고픈 것은  
종이에 줄줄이 써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심부름 보내고 싶다

생각 나는거 그때그때 써서  
생각만 하든 잊어본께

금방 그럴날이 올것이며  
공부 열심히 하든 ...

# 며느라 요것 잔 사온나

완도평생교육원

이영숙 | 67세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두부....

내가 하고픈 것은  
종이에 줄줄이 써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심부름 보내고 싶다

생각나는거 그때 그때 써서  
생각만 하든 잊어분께

금방 그럴날이 올것이어  
공부 열심히 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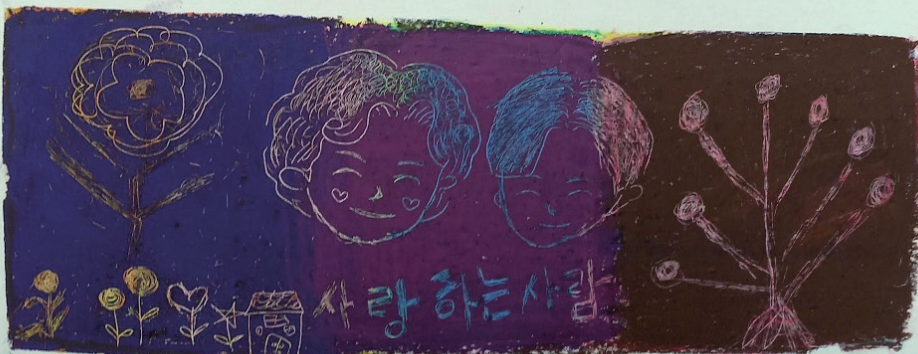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사랑 하는 남편

목포 공공 도서관

소망반 김기선

시를 쓰는 선생님이 오셨다  
기쁜 날 슬픈 날을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기쁜 날은 아들이 결혼해 첫손자를  
안겨 주는 날이고 슬픈 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은 자상 하고 다정 한 사람이었다  
몸이 불편 할 내게 손발이 돼 주겠다고  
말하고 사랑 한다는 말도 자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먼저 가버렸다  
천국 가면 보겠거라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프다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  
모든 다라 왜이리 눈물이 나올까 사랑 하고 보고 싶다



# 사랑하는 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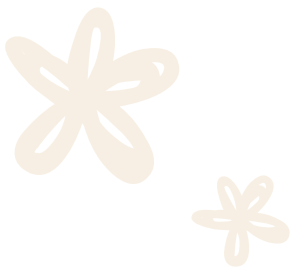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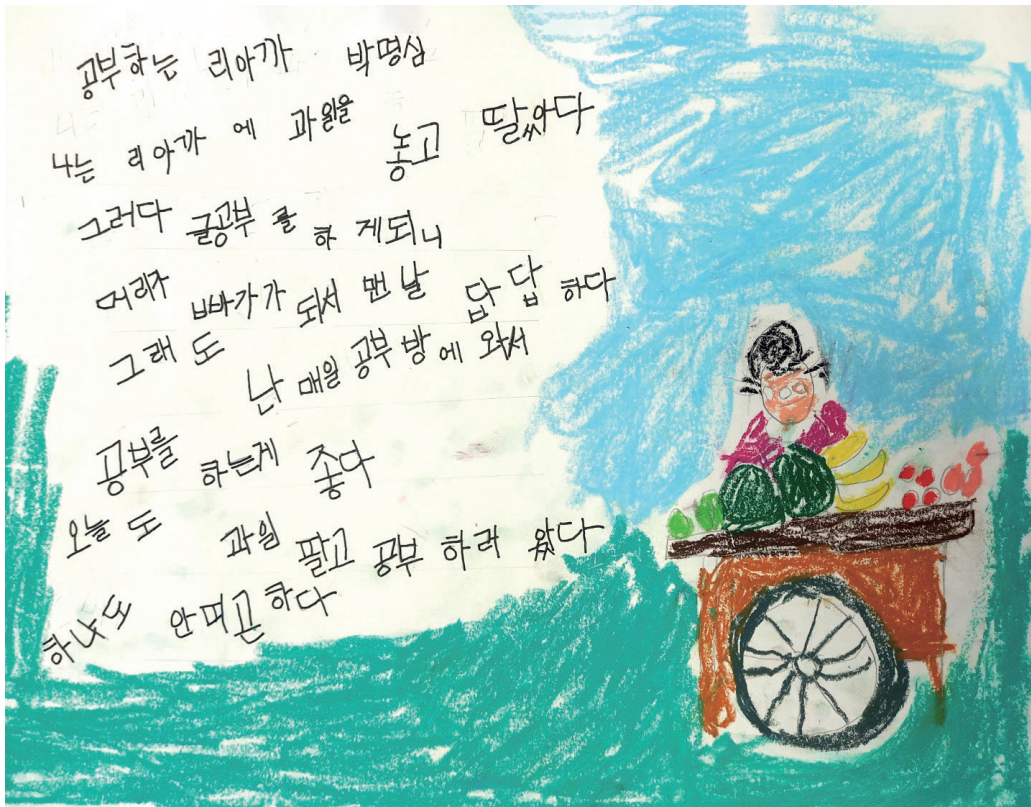
목포공공도서관

김기선 | 68세

시를 쓰는 선생님이 오셨다  
기쁜 날 슬픈 날을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기쁜 날은 아들이 결혼해 첫 손자를  
안겨 주는 날이고 슬픈 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은 자상 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몸이 불편한 내게 손발이 돼주겠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먼저 가버렸다  
천국 가면 보겠지만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프다  
못해준 것만 생각한다  
오늘다라 왜이리 눈물이 나올까 사랑하고 보고 싶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공부하는 리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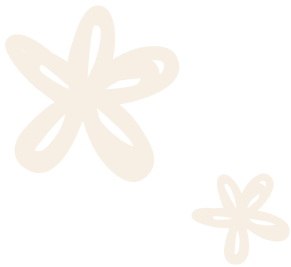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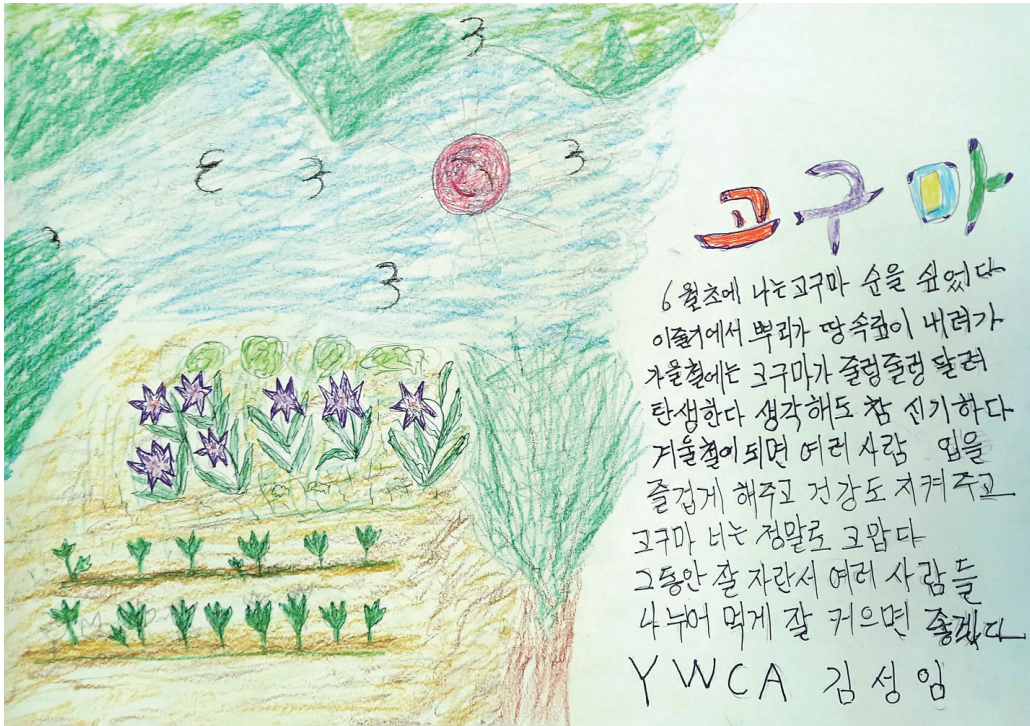
전국 야학협의회 여수지부 상록배움터

**박명심** | 72세

나는 리아까에 과일을 놓고 팔았다  
그러다 글공부를 하게되니  
머리가 빠가가 돼서 맨날 답답하다  
그래도 난 매일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는게 좋다  
오늘도 과일 팔고 공부 하러 왔다  
하나도 안 피곤하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고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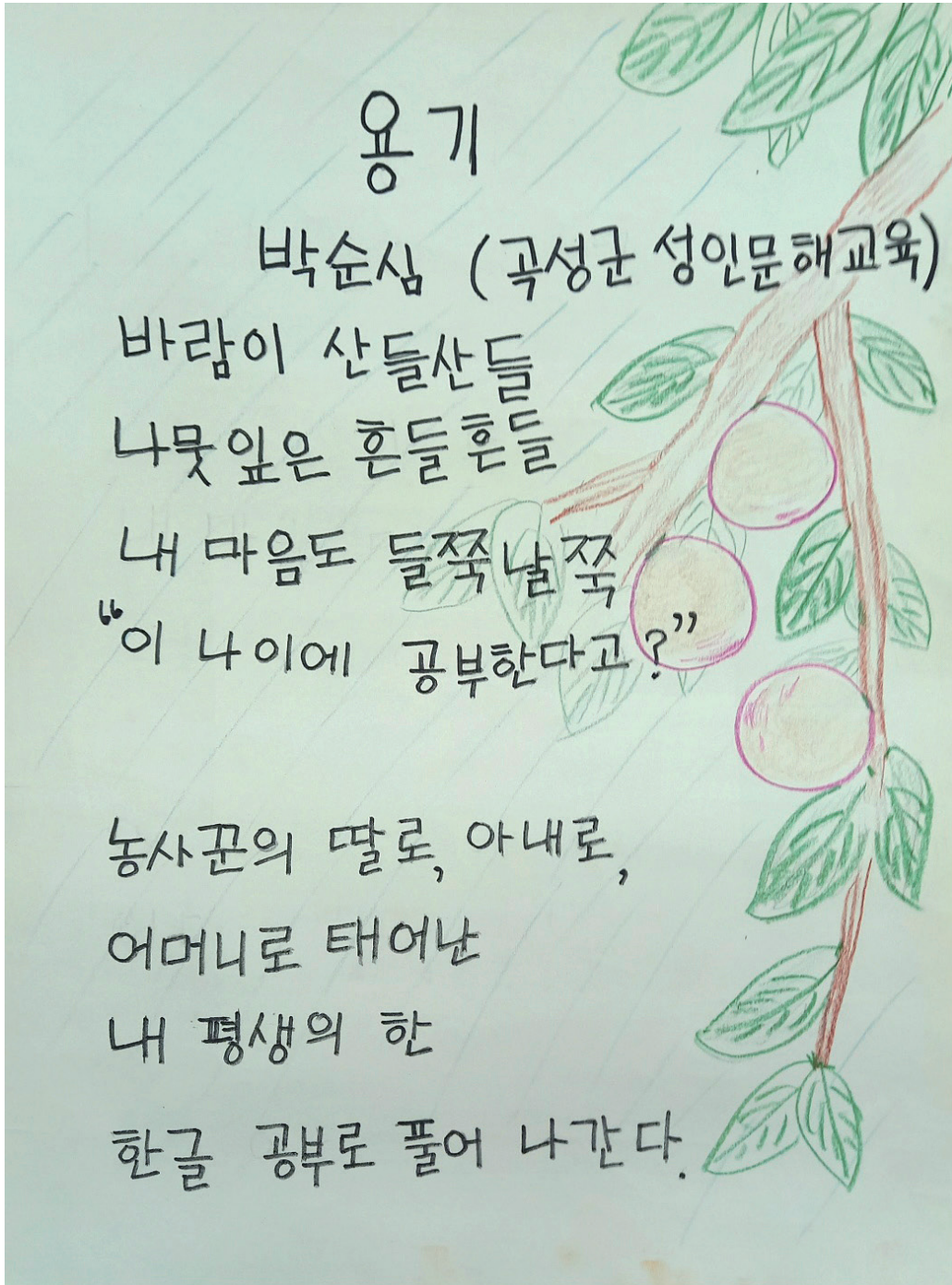
여수 YWCA 문해교실

김성임 | 62세

6월초에 나는 고구마 순을 싶었다  
이줄기에서 뿌리가 땅 속 깊이 내려가  
가을철에는 고구마가 줄렁줄렁 달려  
탐생한다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  
겨울철이 되면 여러사람 입을  
즐겁게 해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고구마 너는 정말로 고맙다  
그동안 잘자란서 여러사람들  
나뉘어 먹게 잘 커으면 좋겠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용기

곡성군 문해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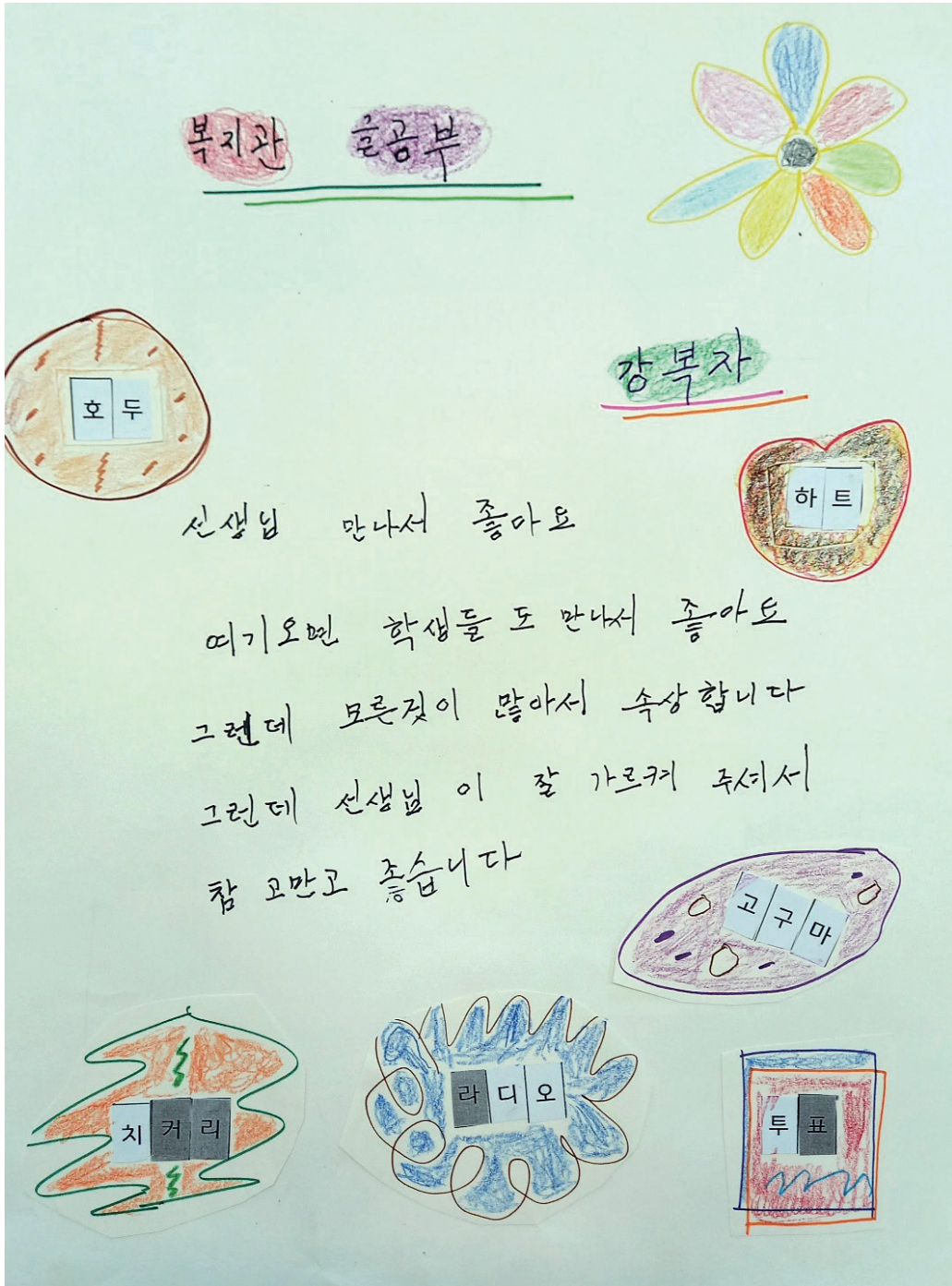
박순심 | 82세

바람이 산들산들  
나뭇잎은 흔들흔들  
내 마음도 들쭉날쭉  
“이 나이에 공부한다고?”

농사꾼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태어난  
내 평생의 한  
한글 공부로 풀어 나간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복지관 글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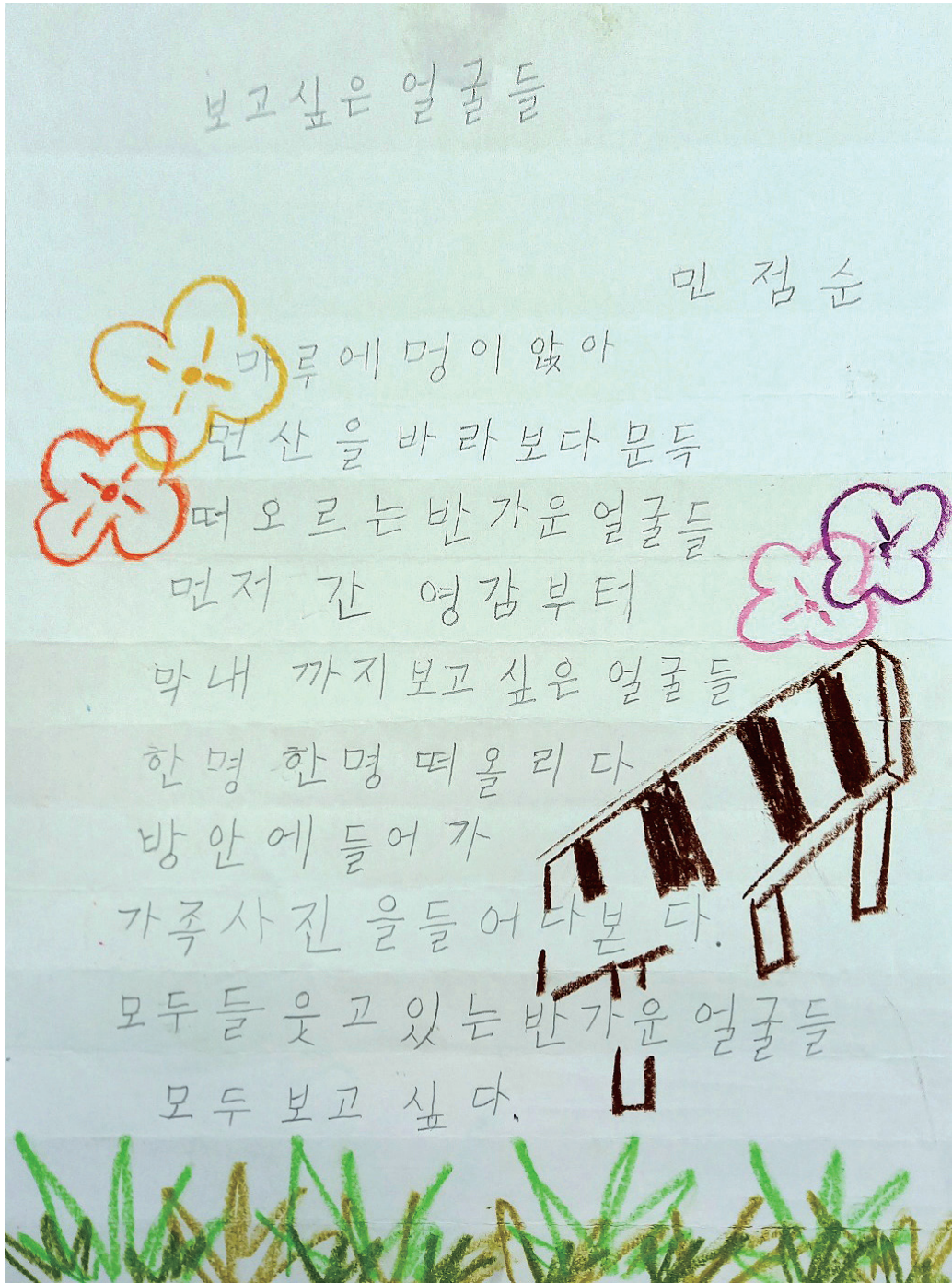
목포시노인복지관

강복자 | 76세

선생님 만나서 좋아요  
여기오면 학생들도 만나서 좋아요  
그런데 모른 것이 많아서 속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잘 가르켜 주셔서  
참 고맙고 좋습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보고싶은 얼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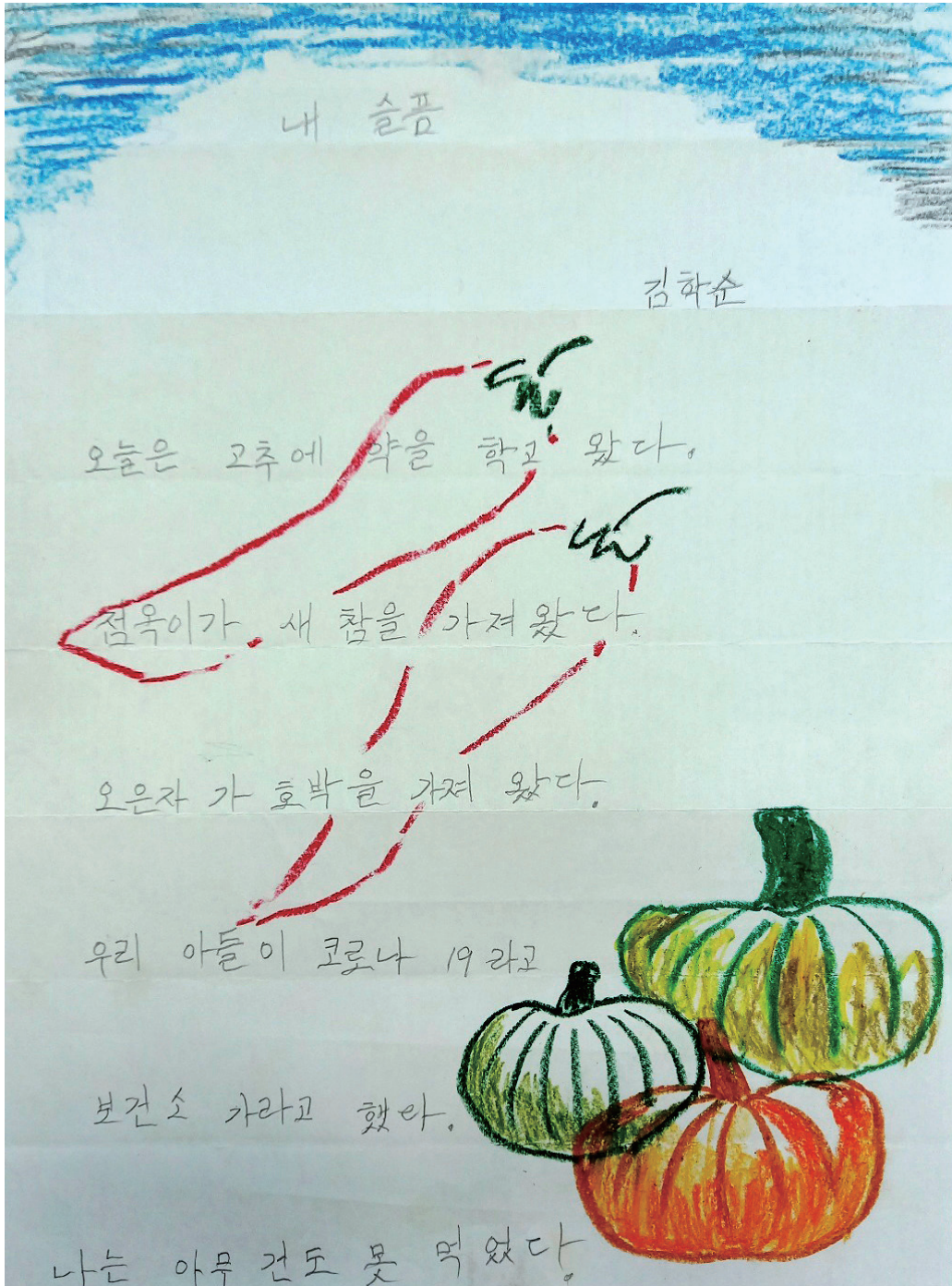
꿈다락 홍지 성인문해교실

민점순 | 79세

마루에 멍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르는 반가운 얼굴들  
먼저 간 영감부터  
막내까지 보고 싶은 얼굴들  
한 명 한 명 떠올리다  
방 안에 들어가  
가족사진을 들여다본다.  
모두들 웃고 있는 반가운 얼굴들  
모두 보고 싶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내 슬픔

꿈다락 홍지 성인문해교실

김학순 | 72세

오늘은 고추에 약을 학교 왔다.

점옥이가 새 참을 가져왔다.

오은자가 호박을 가져왔다.

우리 아들이 코로나 19라고

보건소 가라고 했다.

나는 아무 건도 못 먹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민 들 레

주 순 자

양지 바른 들판에 노란 민들레가 피었어요 .  
저 민들레 좀 봐 참 곱지 .  
그래 정말 곱구나 .  
나무가지에서 참새들이 짹짹 거렸어요 .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와 .  
민들레는 우쭐해 졌어요 .  
바람아 좀 살살 불어 .  
내 꽃잎이 떨어지잖아 .  
민들레가 성을 냈어요 .  
그래도 니가 좋아 .



# 민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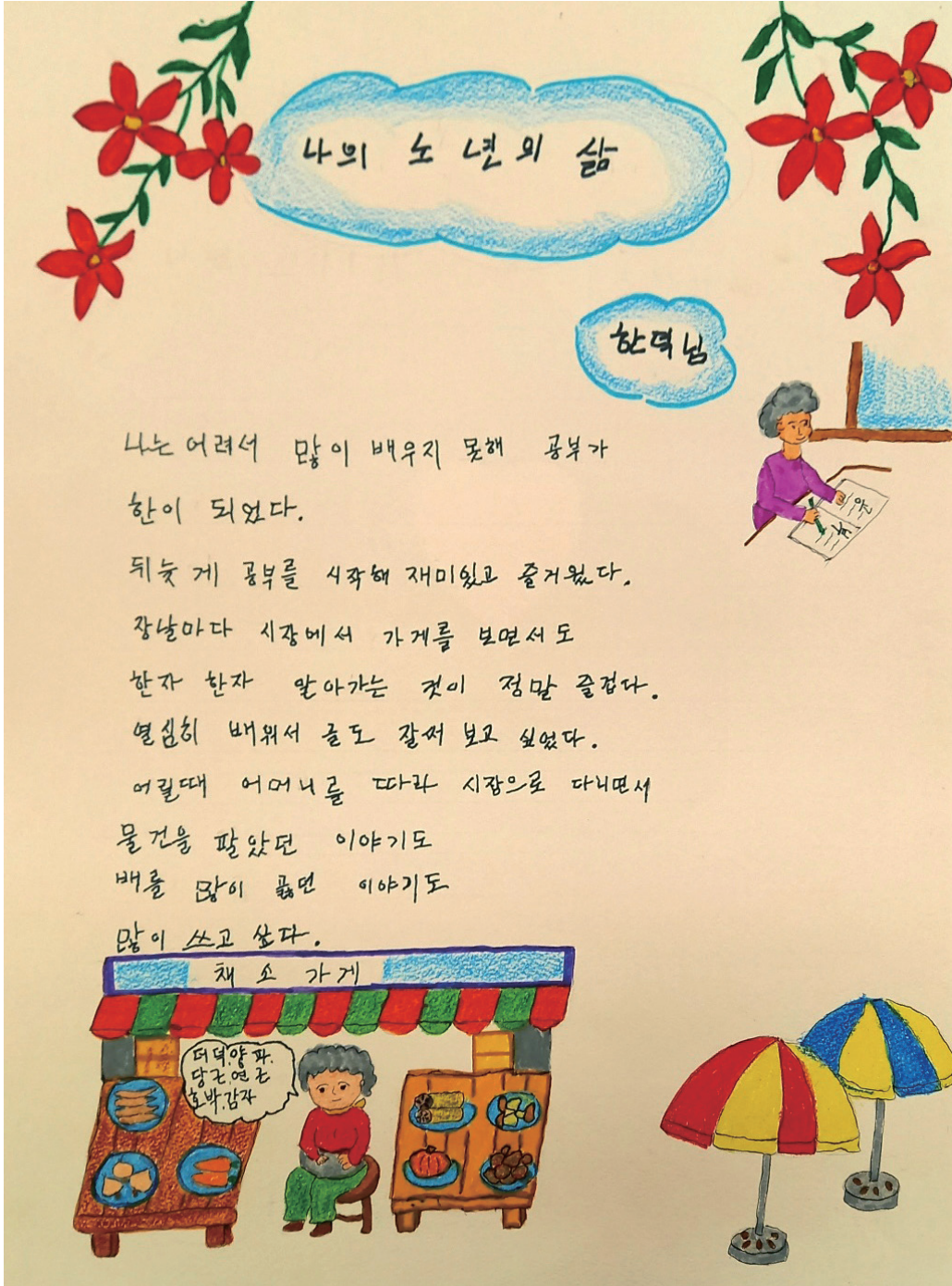
여주시노인복지관

주순자 | 72세

양지 바람 들판에 노란 민들레가 피었어요.  
저 민들레 좀 봐 참 곱지.  
그래 정말 곱구나.  
나뭇가지에서 참새들이 짹짹 거렸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와.  
미들레는 우쭐해 졌어요.  
바람아 좀 살살 불어.  
내 꽃잎이 떨어지잖아.  
민들레가 성을 냈어요.  
그래도 니가 좋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나의 노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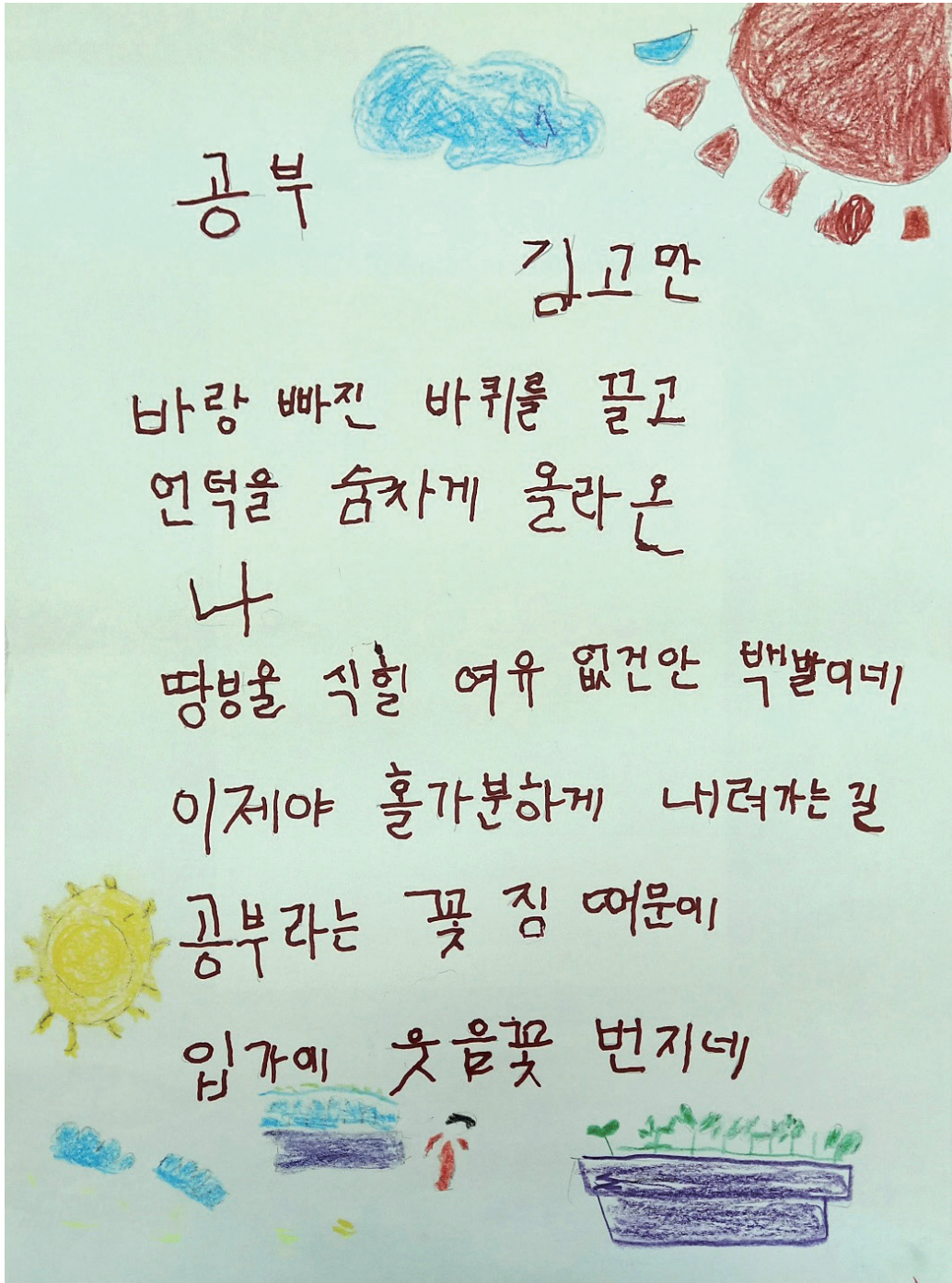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한덕님 | 82세

나는 어려서 만행 배우지 못해 공부가  
한이 되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재미있고 즐거웠다.  
장날마다 시장에서 가게를 보면서도  
한자 한자 알아가는 것이 정말 즐겁다.  
열심히 배워서 글도 잘써보고 싶었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으로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이야기도  
배를 많이 훑던 이야기도  
많이 쓰고 싶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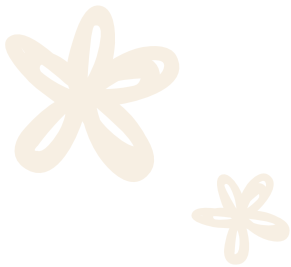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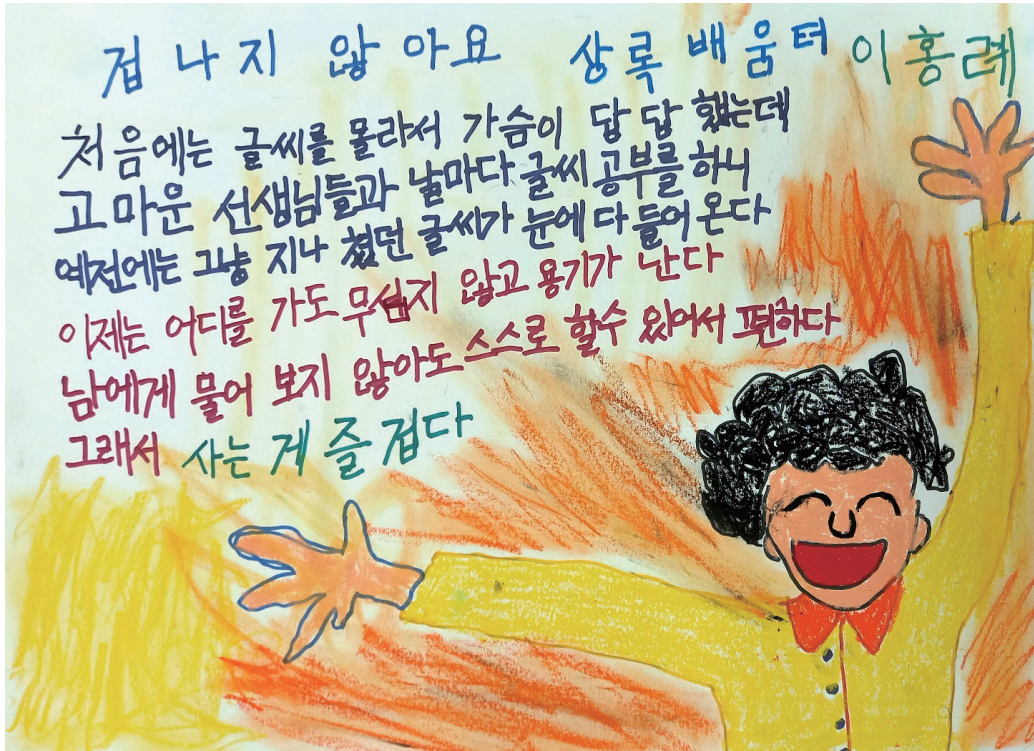
무안군 문해교실

김고만 | 79세

바람 빠진 바퀴를 끌고  
언덕을 숨차게 올라온  
나  
땀방울 식힐 여유 없건만 백발이네  
이제야 홀가분하게 내려가는 길  
공부라는 꽃 짐 때문에  
입가에 웃음꽃 번지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겁나지 않아요

전국 야학협의회 여수지부 상록배움터

**이흥례** | 76세

처음에는 글씨를 몰라서 가슴이 답답했는데  
고마운 선생님들과 날마다 글씨 공부를 하니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글씨가 눈에 다 들어온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무섭지 않고 용기가 난다  
남에게 물어 보지 않아도 스스로 할수 있어서 편하다  
그래서 사는게 즐겁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나, 공부한다!”

조형실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공부한다는 것 숨겨왔다.  
갑자기 손님 오면  
후다닥 감추느라 바빴다.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니  
자신감이 생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싶어진다.

친구들 모임에서  
“나, 공부한다!”고 말하여 버렸다.

모두들 한 마디씩 한다.  
“정말 잘 하였다!”고.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다.

# 나, 공부한다!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조형심 | 65세

매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공부한다는 것 숨겨왔다.  
갑자기 손님 오면  
후다닥 감추느라 바빴다.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드니  
자신감이 생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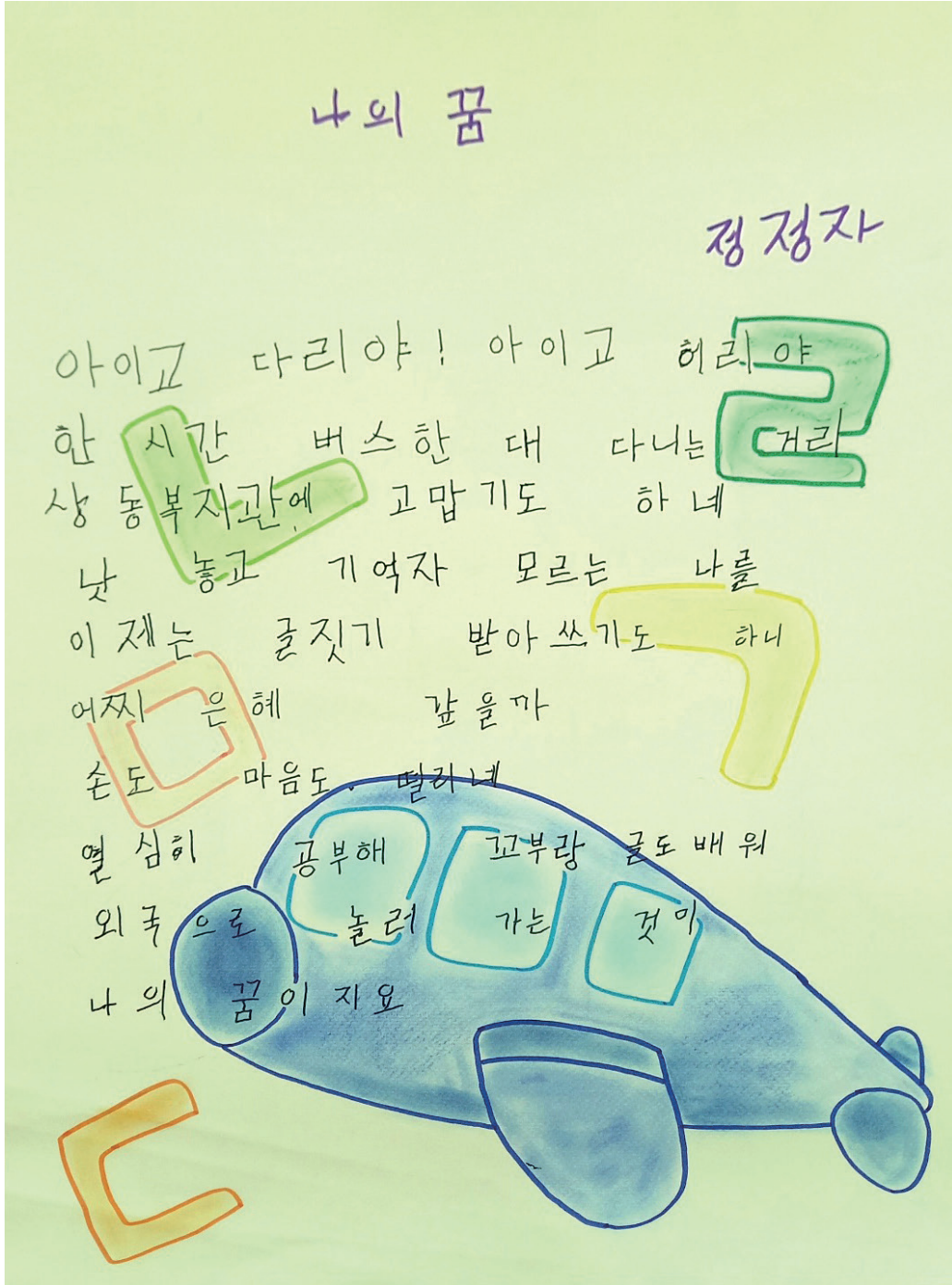
친구들 모임에서  
“나, 공부한다!”고 말하여 버렸다.

모드들 한 마디씩 한다.  
“정말 잘 하였다!”고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나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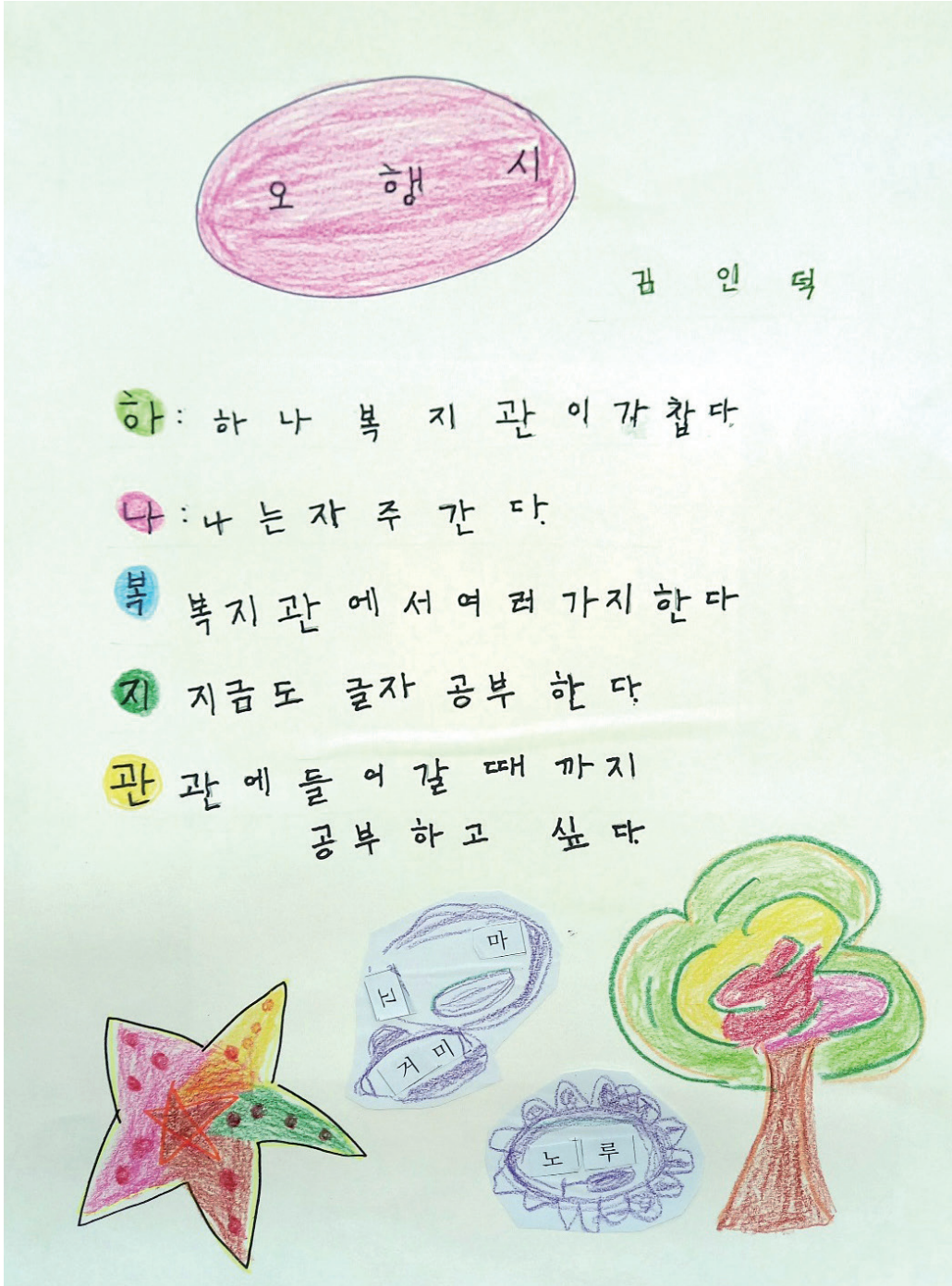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정자 | 79세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한 시간 버스 한 대 다니는 거리  
상동복지관에 고맙기도 하네  
낫 놓고 기억자 모르는 나를  
이제는 글짓기 받아쓰기도 하니  
어찌 은혜 갚을까  
손도 마음도 떨리네  
열심히 공부해 꼬부랑 글도 배워  
외국으로 놀러 가는 것이  
나의 꿈이지요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오행시

하나노인복지관

김인덕 | 76세

하 : 하나 복지관이 가깝다

나 : 나는 자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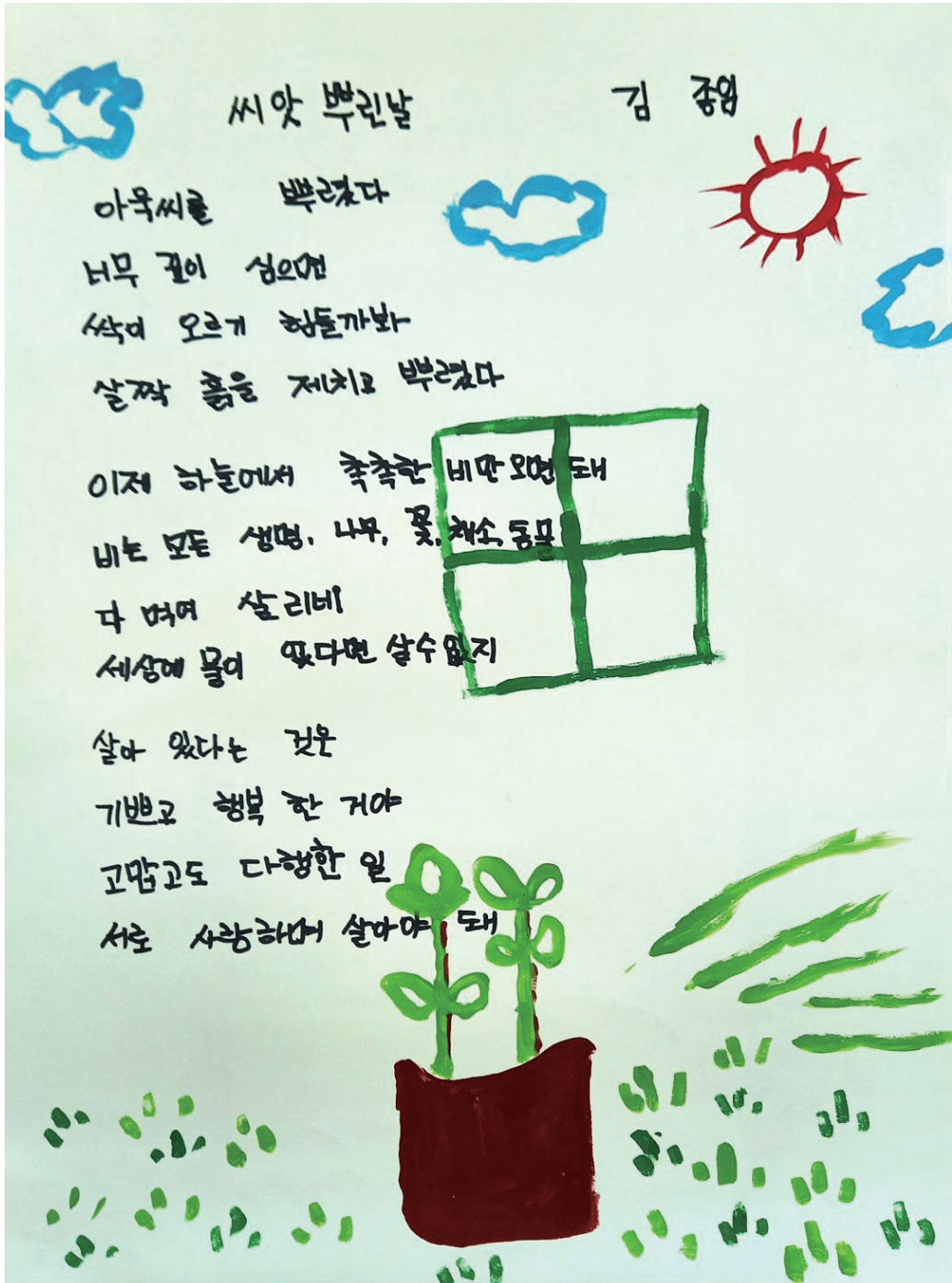
복 :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한다

지 : 지금도 글자 공부한다.

관 : 관에 들어갈 때까지 공부하고 싶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씨앗 뿌린날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김종임 | 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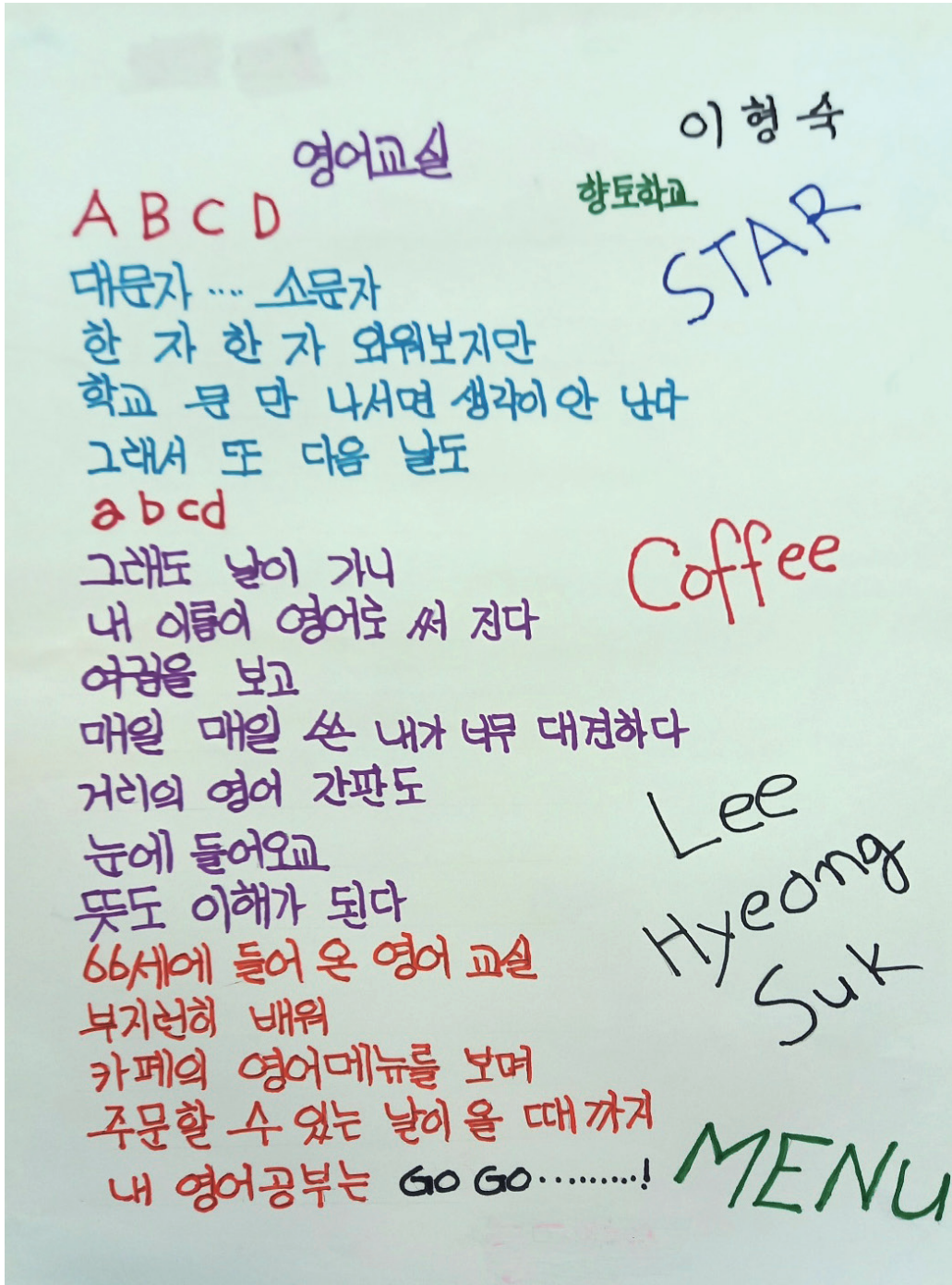
아욱씨를 뿌렸다  
너무 깊이 심으면  
싹이 오르기 힘들까봐  
살짝 흙을 제치고 뿌렸다

이제 하늘엿 촉촉한 비만 오면 돼  
비는 모든 생명, 나무 꽃, 채고, 동물  
다 먹여 살리네  
세상에 물이 없다면 살 수 없지

살아 있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거야  
고맙고도 다행한 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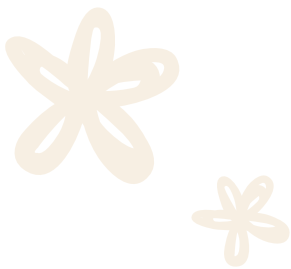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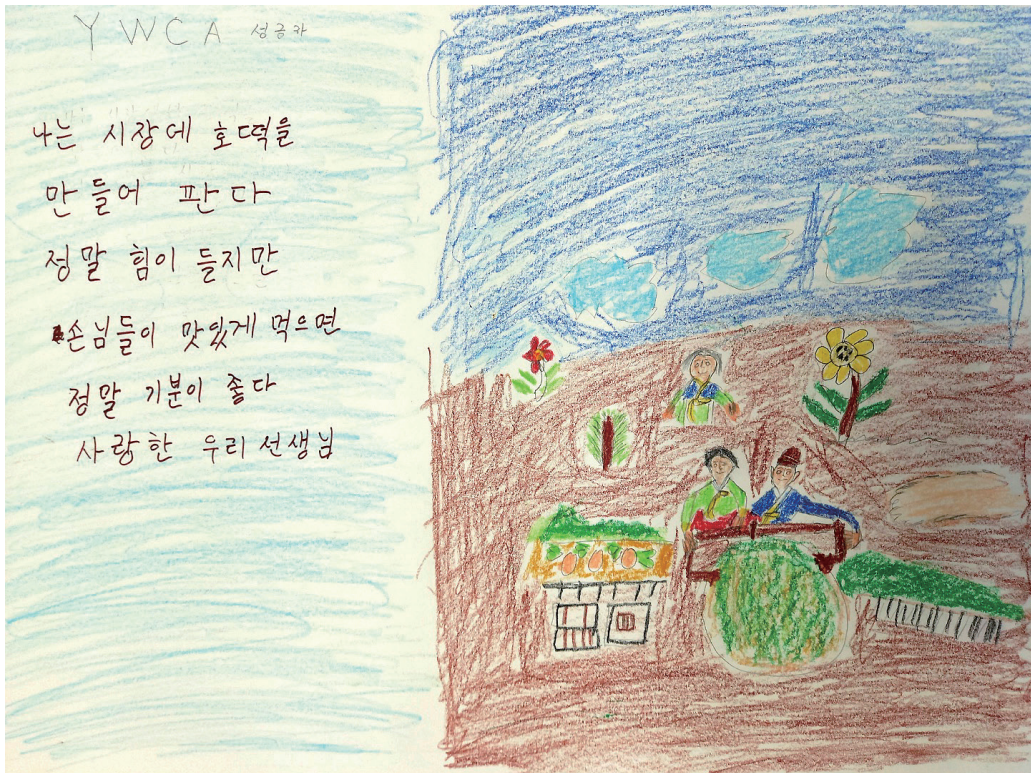
# 영어공식

순천향토학교  
이형숙 | 65세

ABCD  
대문자...소문자  
한 자 한 자 외워보지만  
학교 문만 나서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또 다음 날도  
abcd  
그래도 날이 가니  
내 이름이 영어로 써 진다  
여권을 보고  
매일 매일 쓴 내가 너무 대견하다  
거리의 영어 간판도  
눈에 들어오교  
뜻도 이해가 된다  
66세에 들어 온 영어 교실  
부지런히 배워  
카페의 영어 메뉴를 보며  
주문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내 영어공부는 GO GO.....!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호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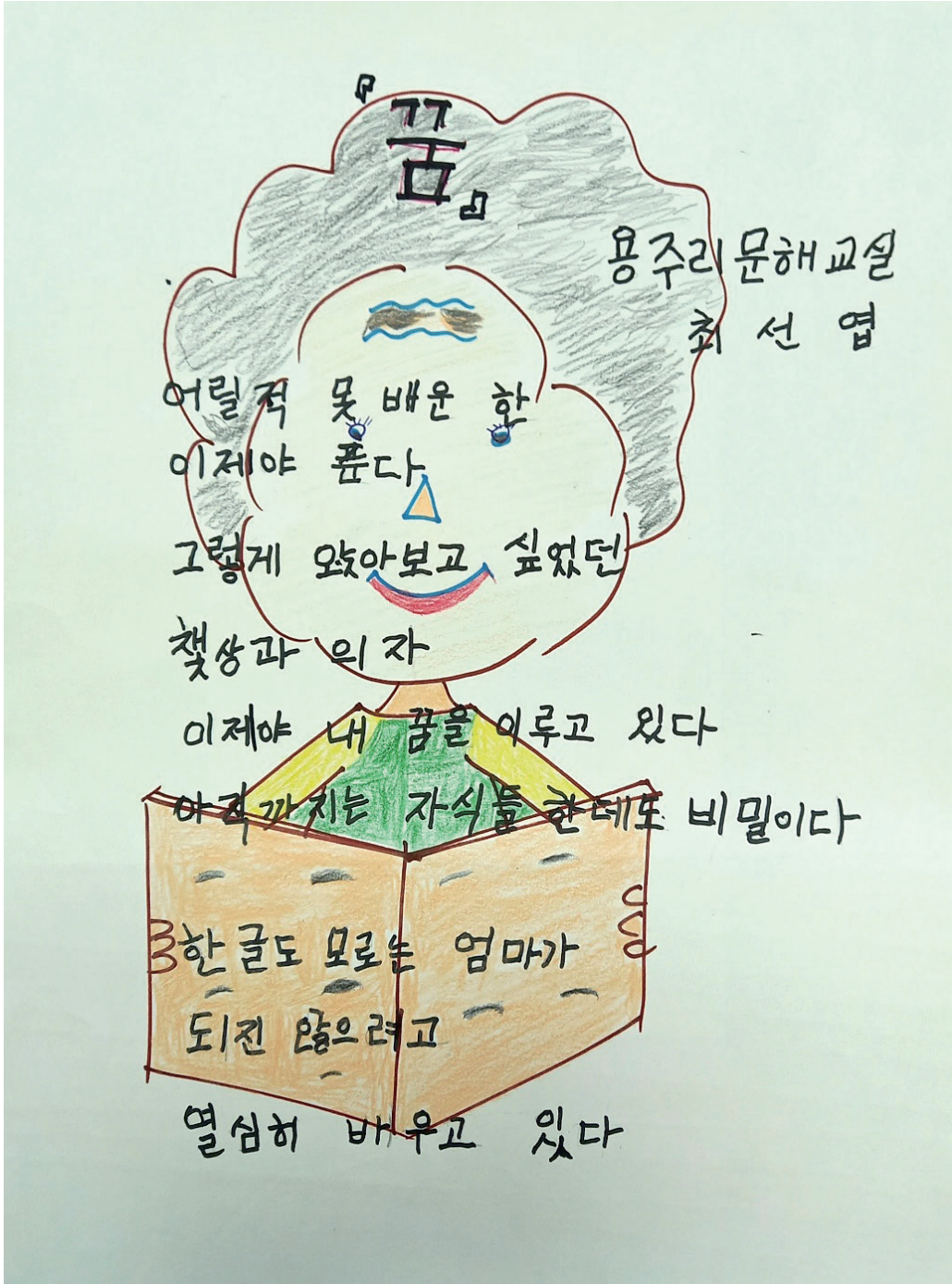
여수 YWCA 문해교실

성금자 | 66세

나는 시장에 호떡을  
만들어 판다  
정말 힘이 들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다  
사랑한 우리 선생님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꿈

여수시 문해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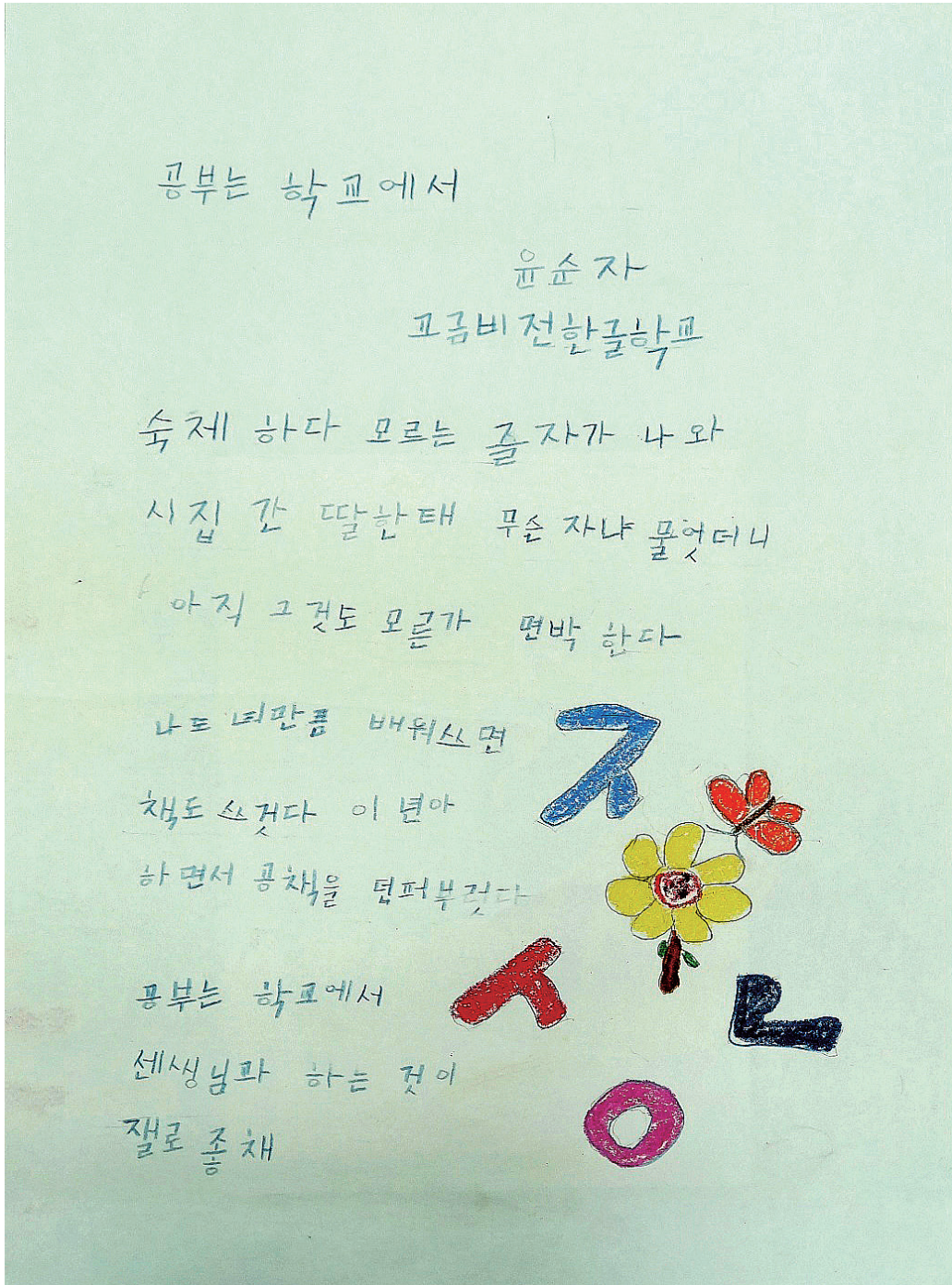
**최선엽** | 70세

어릴적 못 배운 한  
이제야 푼다  
그렇게 앉아보고 싶었던  
책상과 의자  
이제야 내 꿈을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는 자식들 한테도 비밀이다

한글도 모로는 엄마가  
되진 않으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공부는 학교에서

고금비전한글학교

윤순자 | 8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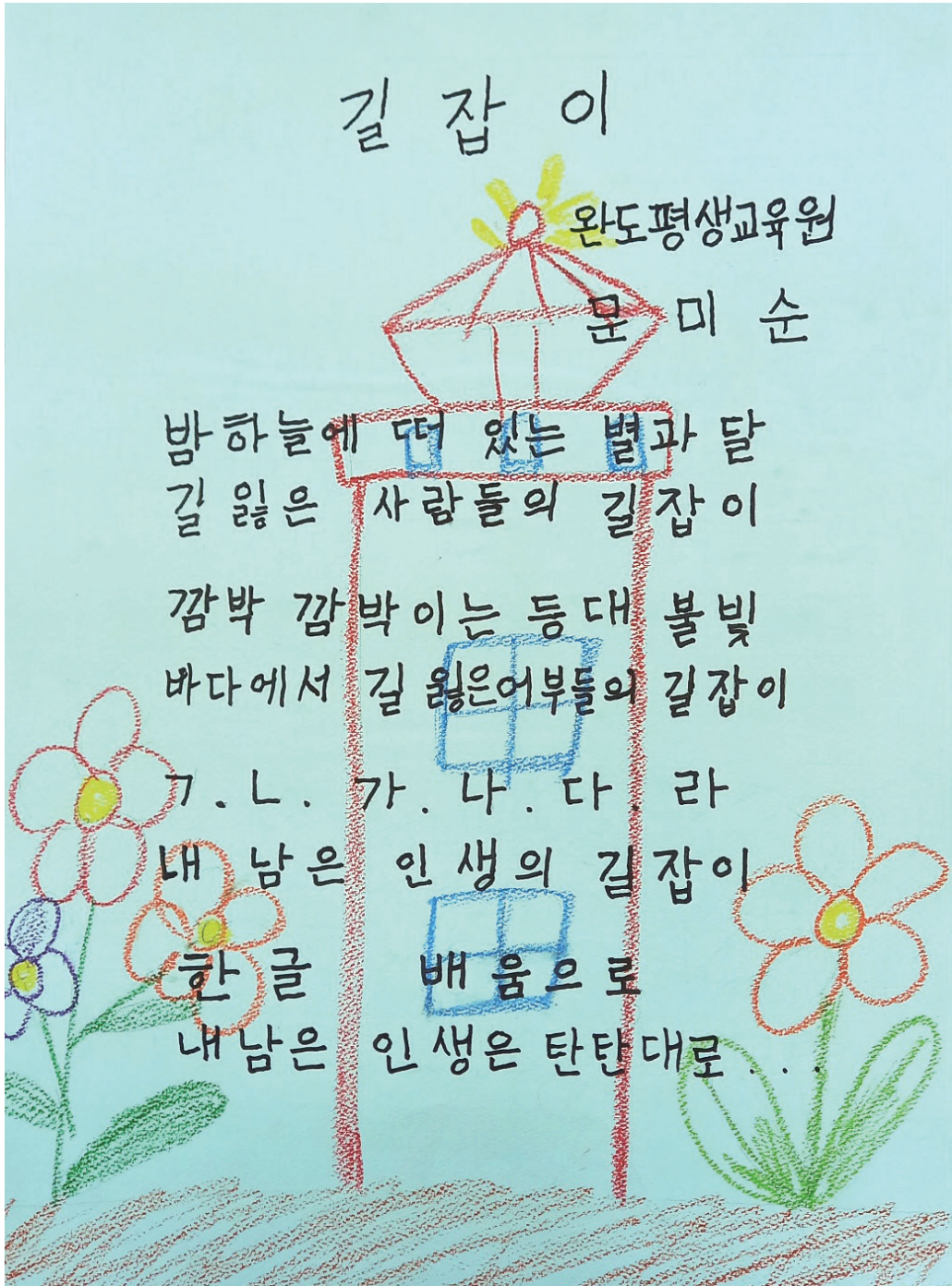
숙제 하다 모르는 글자가 나와  
시집 간 딸한테 무슨 자냐 물었더니  
아직 그것도 모른가 면박한다

나도 너만큼 배워쓰면  
책도 쓰것다 이 년아  
하면서 공책을 덩퍼부렸다

공부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하는 것이  
절로 좋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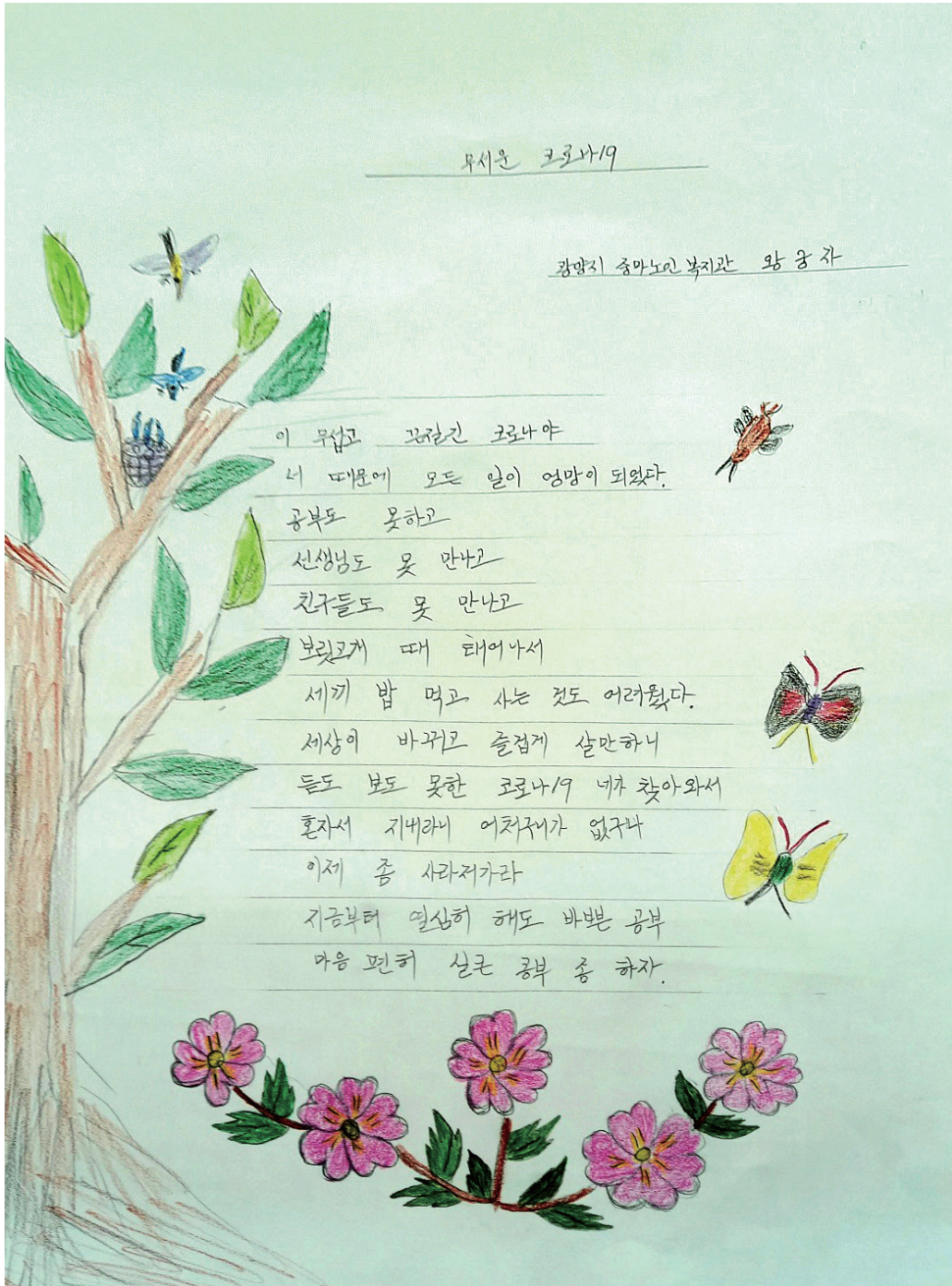
완도평생교육원

문미순 | 64세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  
길 잃은 사람들의 길잡이  
깜박 깜박이는 등대 불빛  
바다에서 길 잃은 어부들의 길잡이  
ㄱ. ㄴ. 가. 나. 다. 라  
내 남은 인생의 길잡이  
한글 배움으로  
내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무서운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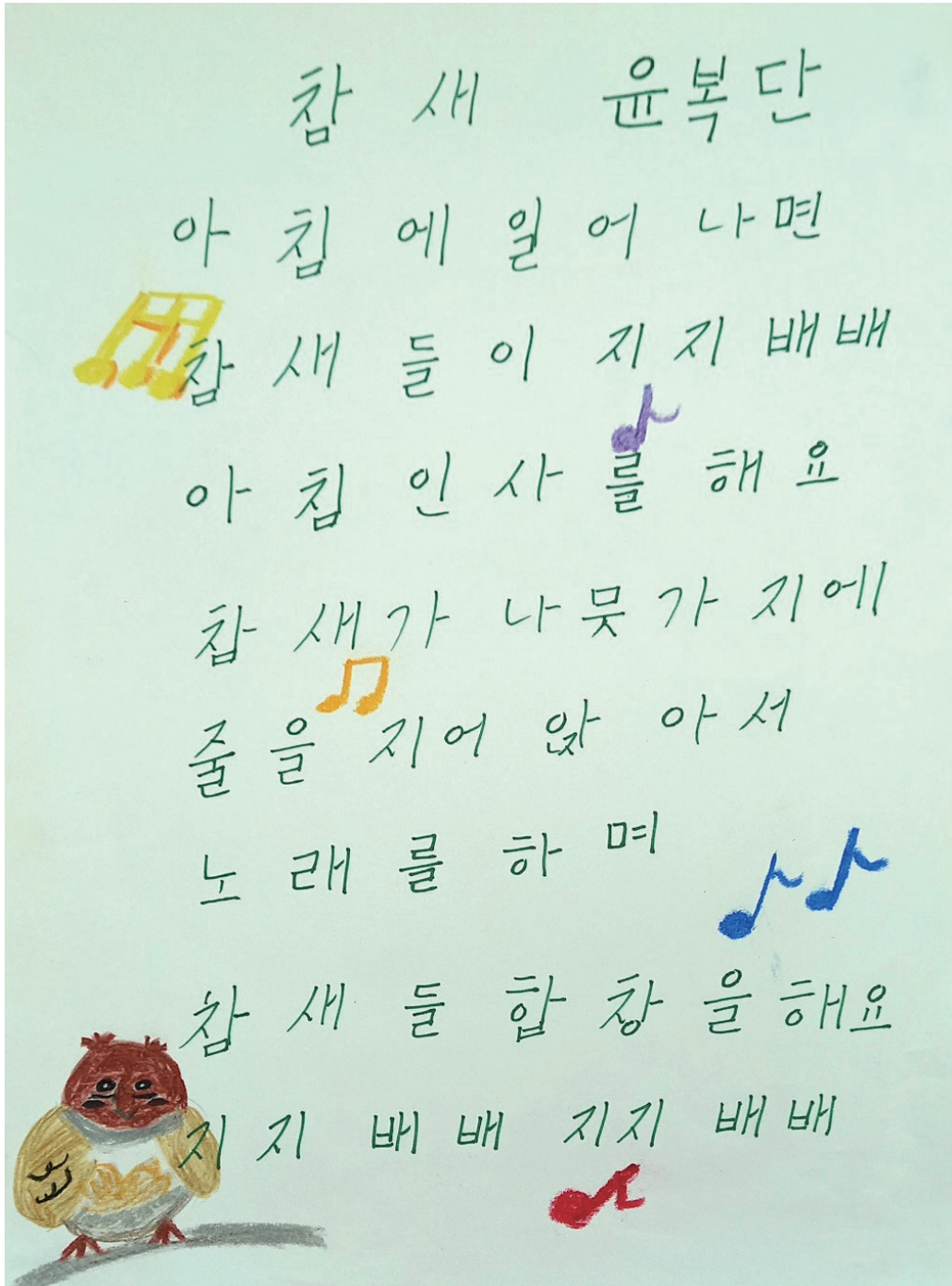
광양시 문해교실

왕궁자 | 81세

이 무섭고 끈질긴 코로나야  
너 때문에 모든 일이 엉망이 되었다.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보릿고개 때 태어나서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다.  
세상이 바뀌고 즐겁게 살만하니  
듣고 보도 못한 코로나19 네가 찾아와서  
혼자서 지내라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제 좀 사라져가라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바쁜 공부  
마음 편히 실큰 공부 좀 하자.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참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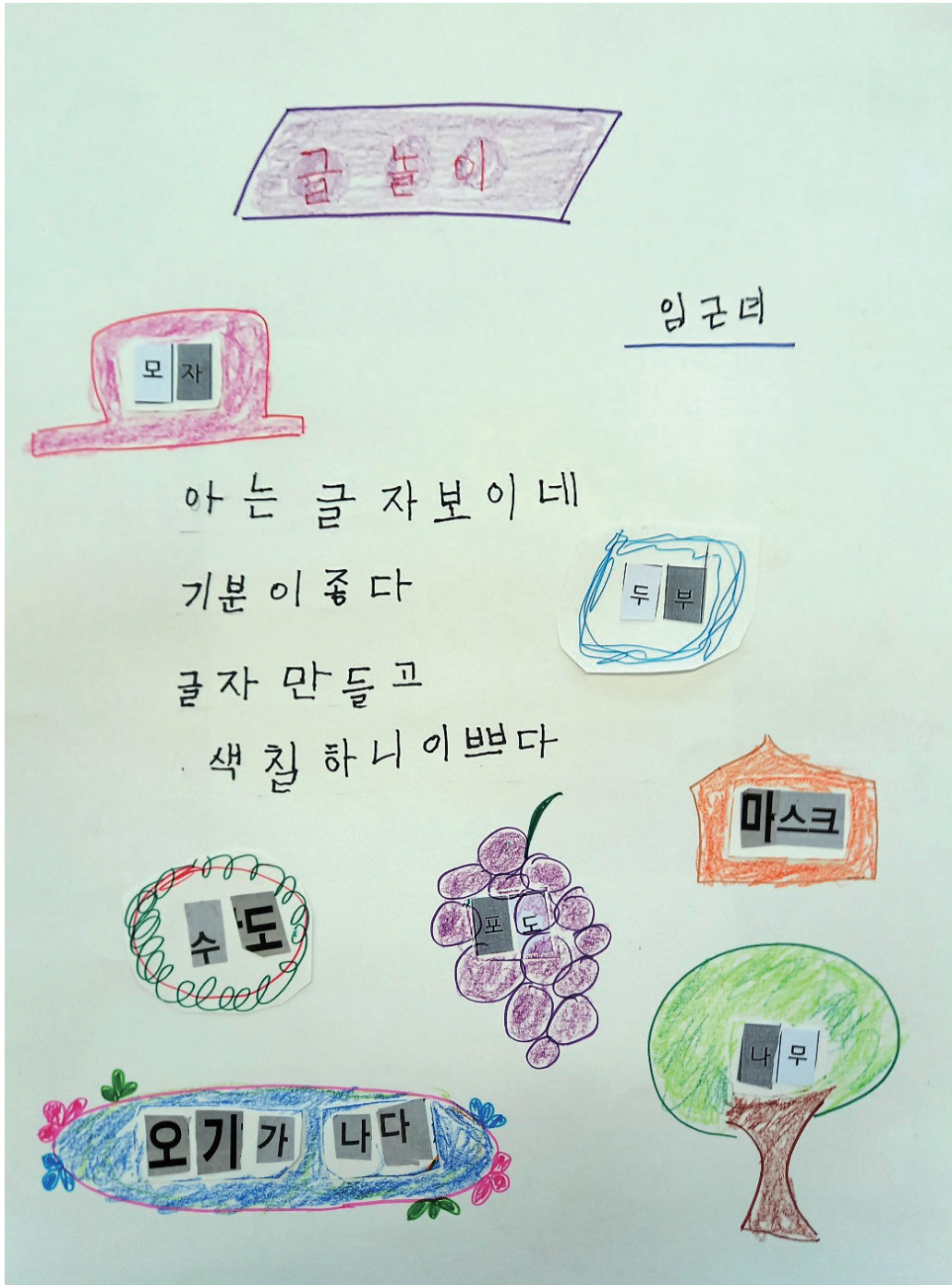
상리사회복지관

윤복단 | 77세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들이 지지배배  
아침인사를 해요  
참새가 나뭇가지에  
줄을 지어 앉아서  
노래를 하며  
참새들 합창을 해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 글놀이

목포시노인복지관

임근녀 | 72세

아는 글자 보이네

기분이 좋다

글자 만들고

색칠하니 이쁘다



#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발행일 | 2021. 10.

발행처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

연락처 | 061-285-9489

홈페이지 | [www.jnile.kr](http://www.jnile.kr)

함께하는 기관 | 곡성군 문해교실, 영광공공도서관,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여주시 문해교실, 섬사랑 평생교육원, 광양시 문해교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담양공공도서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보길도 꿈꾸는 학교,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목포공공도서관, 고금비전한글학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무안군 문해교실, 순천향토학교,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나주공공도서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완도평생교육원, 전국 야학협의회 여수지부 상록배움터, 여수 YWCA 문해교실, 목포시노인복지관, 꿈다락 흥지 성인문해교실, 여수시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상리사회복지관

